



# 時計塔

SIGETOP



2014년 10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1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徐仁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倫錫 徐亮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편집인: 李元澤 羅斗燮 李善姬 李熙景 許善行

## 2015년 학술대회를 기다리며...



Glenpointe Marriott Hotel at Teaneck, NJ

우리 미주 동창회는 모든 선배님들의 땀과 정성으로 설립되어, 지난 42년간 미풍 속에서 순항해온 유일 무일한 철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에 계신 모든 동문들의 협조와 성원을 등에 업고 1,200 여명의 북미주 동문들과 함께 할 2014 ~ 2015년도 함해는 역대 회장단들이 지혜와 슬기로써 설립해놓은 조종기를 잡고, 패기에 찬 젊은 함해사들을 모아, 함께 함해할 예정입니다.

2015년 학술대회는 뉴욕 맨하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뉴저지 Teaneck에 위치한 Glenpointe Marriott Hotel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및 근교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기회를 만드실 겸, 학술 대회에 오셔서 동문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목요일~일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6월 4일은 간단한 Ice Breaking Reception만 있을 예정이니, Class Reunion은 각 동기회장의 재량으로 호텔 근처의 식당을 정하시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식당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기회 모임이 없는 동문들은 Fort Lee에 있는 풍림식당으로 모두 초대하오니 회장단과 함께 식사와 회담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친척들과의 만남이나 종교 동문들과의 만남 등등의 개인적인 행사는 반드시 6월 4일 (목요일)이나 6월 7일 (일요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절대로, 절대로 다른 약속을 만들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중요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6월 5일 (금요일) - 호텔 내에서 Banquet이 있을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6월 6일 (토요일) - 허드슨 강 위에서 호화찬란한 Yacht를 타고 맨해튼과 뉴저지의 멋진 야경을 즐기면서 Grand Banquet를 가질 예정입니다. 두고 두고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이 될 것을 장담합니다.

\* 6월 7일 (일요일) - President Forum 과 Green Project Forum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회합이며, 전임 회장단의 지혜와, 젊은 동문들의 활기가 잘 조화될 뜻깊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Green Project의 오무연 위원장, 한창규 총무, 이선희, 남명호, 은용 동문 등의 활약으로 인해 소극적이었던 젊은 동문들이 80여명에서 순식간에 115명으로 늘어났고, 가장 완벽한 Directory를 단시간내에 완성시켰습니다. 현재 SNUCMA

Alums in US Facebook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여 통의 소식들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2015년 학술대회 에는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동문들의 패기와 열정에 우리 동창회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President Forum과 Green Project Forum이 끝나자 마자, 3박 4일의 Post Convention Tour를 떠날 예정입니다. 한 때 세계 제 1위의 신혼여행지였고, 주옥 같은 영화 촬영장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천섬 (Thousand Islands), Lake George 등을 관광하면서, 이홍빈(63), 이건일(68) 동문 등의 Wine 대가들을 모시고 곳곳에 수없이 흠어져 있는 Winery 중 몇 곳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Wine에 관심이 있으신 동문들께 좋은 여행이 될 줄 압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Alaskan Cruise Convention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어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Wise Stories (지담)" 의 sequel을 온기철(71) 동문과 Ancient Korean History의 대가로 명성이 자자한 김은한(66) 동문의 합작으로 버스 여행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스 여행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정정수(62), 김중권(69), 문대옥(73) 동문 등의 구수한 만담과 가라오케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Niagara Falls와 Lake George에 머무는 동안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local chapter 동문들과의 만남도 주선해볼 예정입니다.

동문들의 골프 열기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 계신 골프 애호가들을 위해 pre-convention 골프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Glenpointe Marriott Hotel에서 서쪽으로 한시간 떨어진 곳에 특급 골프장 6-7개를 가지고 있는 Crystal Springs Resort에서 1박 2일 "2" shot-gun rounds를 저렴한 가격(첫날 저녁 및 둘째날 아침 식사 포함 일인당 약 \$200)으로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 6월 3일 (수요일): 2:00 P.M. shot-gun tournament at Great Gorge GC. 저녁 식사후 취침 at the Minerals Hotel.

\* 6월 4일 (목요일): 부페 아침 식사. 8:00 A.M. shot-gun tournament at Black Bear GC. 끝난후 학술대회장이 열리는 Glenpointe Marriott Hotel을 향하여 출발.

학년 및 chapter 대항도 계획중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예약 문제상 저렴한패키지 가격은 11월 25일에 마감합니다. 가능한한 학년 대표님들께서 단체로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Convention Co-chair 최준희 (64) & 오용호 (72)

#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 박용현 모교 동창회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장 취임



박용현 모교동창회장이 서울대학교 이사장에 취임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하는 규정에 따라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직을 맡아 왔는데 오 총장이 지난 7월 19일자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새 이사장을 선임하게 된 것이다.

박용현 신임이사장은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된 2011년 말 초대 이사로 선임됐으며 이사의 임기가 남아있는 2015년 12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두 차례의 서울대병원장과 두산 회장을 지내는 등 탁월한 경영수완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희택(64 남가주) 동문의 Medical Talk Show-

Time Warner Cable 방송의 channel 1483인 TVK라는 한국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에 <Dr. Jeon의 의학정보> program을 진행하고 있는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 동문은 그동안 10번에 걸쳐 각 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21세기의 첨단의학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대담을 통해 새롭고 재미있는 의학상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방송은 YouTube로도 볼 수 있는데 search는 "Edward Jeon" 으로 하면 된다. 전 동문은 한의학 침술학도 수학하였으며 오랫동안 LA 한국일보 건강 칼럼을 써 왔으며 한미 박물관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과외 활동과 현재에는 Northridge 병원 신경내과 과장, 감리교 장로, 서울의대 남가주 동창회 이사장 등으로 노인장을 과시하고 있다.

## 이원택(71, 남가주) 동문의 <Meta Writing> 출판



60세가 넘어 늦깎이로 문단에 등단한 이 동문이 그동안 독학으로 글쓰기 공부한 것을 정리한 책 <메타 라이팅>이 지난 7월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에 의해 발간되었다.

신국판 429쪽으로 된 이 책은 미국 정신과 의사가 한국의 문화도를 위해 쓴 미래 지향적 글쓰기 지침서로서 폭 넓은 인문학에 기초를 두고 예리한 관찰과 심리분석을 통해 글쓰기의 본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교양 서적이며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글쓰기에 관한 모든 "know how"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포괄적 "글쓰기 백과사전"이다. 가격은 \$20 정도로 Aladdin을 비롯한 한국 및 미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하거나 저자 email(wonlee0120@gmail.com)로 직접 주문하면 된다.

## 조세현 동문 (71) 방미

지난 10월 4일(토), 20여 년간 미국에 살다가 18년 전 귀국해서 차병원 건강 증진 센터 소장으로 있는 조세현 동문 부부가 제2의 고향 L.A.를 방문해서 71년 동기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조 동문은 본업인 산부인과는 일찌감치 졸업하고 차병원의 검사실장으로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막후에서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공산치하에서 구해준 주한 미군을 도와주어 왔다. 그동안 받은 명예 태권도와 합기도 단수가 10단이 넘는단다.



좌로부터 뒷줄: Mrs. 김성환, 김일영, 조세현, 박진국/ Dr. 김일영, 박진국  
앞줄: Dr. 이원택, 김성환, 조세현, 박상호

## 김승업(60) 동문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계신 김승업(시계탑 제2대 편집장 역임)동문께서 와병중에 시계탑을 읽으면 위도가 되고 용기를 얻으신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보내왔다. 김승업 동문의 쾌차를 빕니다.



## New Jersey Englewood Cliffs Gathering

북부 뉴저지에 위치한 한적한 동네 Englewood Cliffs에 12명의 동문들이 한 집 건너 모여 살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돈독한 우애를 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78년 졸업 이상오 동문(뒷줄 맨 왼쪽)때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미시간 지부 소식

미시간 지부 동문 및 동문부인 27명이 지난 9월 13일 가을 골프대회를 마치고 퓨전 레스토랑 Shiro에서 3시간 넘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참석하신 동문들: 민병각(56) 남성의(62) 조명호(62) 정태(62) 채무연(65) 조의열(66) 김희주(68) 문광재(68) 유효운(69) 김유식(71, 회장) 오동환(71, 부회장) 강태수(71) 장병호(72) 원종수(75)



## 남가주 지부 선후배의 밤 성황리에 마쳐

남가주 동창회 선후배의 밤 행사를 지난 8월 27일 동문과 동문부인 총 90명이 참석하여 즐거운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후배의 밤은 동문이 경영하고있는 골프장에서 분위기에 맞게 서울대 음대 동문중 pianist와 cellist께서 아름다운 음악을 곁들여 주어 더욱 흥을 돋구었습니다.

선후배의 밤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으로 13번째가 되는데 주로 8월에 행사를 치룹니다. 금년에도 타주에서 남가주로 이주하신 동문들을 각 동기대표께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선후배간의 친교를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동문회를 위해 도네이션 하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아직 도네이션하지 않은 분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 하신분들: 김태웅(63) 1000, 권영조(63) 2000, 조한원(63) 500, 조동준(64) 500, 강명식(67) 500, 이근웅(67) 200, 김성환(71) 1000, 박진국(71) 100, 고영규(73) 500, 김대중(76) 1000, 최광휘(76) 1000, 조경구(78) 700, 차민영(82) 1000, 안상훈(94) 300 - 최광휘(76) 보고



## 메릴랜드 지부 소식, 새회장에 이재승(61)동문

수년간 년2회 골프와 만찬을 겸하던 모임을 밤길이 불편하신 선배님들을 배려하여, 만찬은 9월 27일 낮 모임으로 하고 골프는 일주일후인 10월 4일로 했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일년동안의 회장직을 빈틈없이 치루시어 서울의대 동문들의 위상을 높으신 강창욱(61) 동문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한채, 이재승(61) 동문께서 새회장직을 인계받으셨습니다. 또다시 희망에찬 일년을 기대합니다.



9월 27일 가을만찬: John's Hopkins에 연수차 오신 서울의대병원의 박철기 박사님(왼쪽 앞)과 동창들: 박철기(96) 조세진(71) 김충규(66) 이규찬(67) 도상철(69), 임필순(60), 한성업(59), 임낙중(59), 신영철(59), 강창욱(61), 이재승(61), 신상균(58). 사진(아래): Fairway Hills Golf Club in Columbia에서 라운딩 후.



# 2014-2015 제1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4년 9월 13일 동부 7시, 서부 4시  
 장소: 동부 - Double Tree Hilton Hotel / 서부 - JJ Grand Hotel  
 동부 참석자:  
 노용면(55) 채규철(59) 최종진(59) 이희경(61) 이흥빈(63) 추재욱(63)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허선행(64) 최순채(66) 서윤석(68) 강유구(71) 강창홍(71)  
 문대욱(73) 서인석(73) 이승호(79) 남명호(81) 이선희(81) 한창규(81) 심인보(83)  
 오무연(89)



서부 참석자: 김태웅(63) 김홍서(69)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고용규(73) 최광휘(76) 조형기(92)



Proxy: 김용식(55) 정구영(57) 이만택(58) 황현상(61) 송영두(62) 정정수(62)  
 김택수(63) 김태환(64) 이명희(66) 최영자(66) 이건일(68) 엄규동(69) 조영갑(70)  
 김유식(71) 강태수(71) 조세진(71) 심완섭(73) 김원정(75) 한민우(75) 김치갑(79)  
 백승원(79) 이영인(86) 안상훈(94)

1. 성원 점검후 서부 오후 4시, 동부 오후 7시, 개회를 선언함.
2. 2013-2014 제2차 이사회 통합대의원회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와 제청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3. 지난 통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이후 돌아가신 4분의 동문들에 대한 조의 표함.
4. 회장 인사(서인석): 참석하신 모든 임원, 이사 및 guest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장 임기중에는 예년에 비해 Green Project와 Community Outreach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모든 동문들의 협력과 격려가 요망됨. 11월 22일 Fort Lee Double Tree Hilton에서 있을 Annual ball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총무보고(한창규): 처음부터 예정한대로 Green Project와 Community Outreach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13일 오후까지 있었던 Green Project와 Community Outreach 모임 및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함. Unfinished Business는 각 분과 위원회 보고서 함께 의논함.
6. 재무보고(심인보): 지난 회장단에서 정식 결산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음. 228명이 회비 및 donation을 냄.

### Committee 보고:

- Finance Committee (최순채 위원장): 지난 회장단의 결산보고를 기다리고 있음.
- Scholarship Committee (이영인 위원장; 서면보고): 본부 컴퓨터 고장으로 2014년 가을 장학금 신청서류를 아직 전해받지 못했음. Jamie Kim Office

- manager가 몇몇 신청자들의 자질에 대해 언급함. 김태웅(63)이사께서 서류심사를 강화 무자격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지 않도록 건의함.
- Fund Raising Committee (추재욱 위원장): Directory을 위한 fund raising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Mrs. 김성환의 활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서면보고): \$300,000을 기준으로 지난 10-15년간 큰 변화가 없음. 8월 21일 현재 \$300,481(GMB \$414,032) 잔고가 있음.
- Publication Committee (이원택 위원장): 새로 위촉된 김명원(68), 서윤석(68) 나두섭(73) 및 이선희(81) 편집위원을 소개함. 이선희 편집위원은 2-3 페이지의 "Green Project Corner"를 맡을 예정입니다. 시계탑 문집 제5호는 320페이지 정도로 10월말에 출판하여 11월 22일 Annual Ball 때 배부할 예정입니다. 1,600부를 출판해 모교 및 모교동창회는 물론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도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 시계탑의 칼라 페이지를 늘리고 printing quality도 높일 예정입니다. 작가의 간단한 소개를 실을 예정입니다. 시계탑 편집장이 주도하고 있는 Photo Contest (Artistic & Memorable)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Advisory & Exchange Committee (이만택 위원장): 컨벤션에 참석하는 training 중에 있는 후배 동문들을 위해 수여하고 있는 travel fellow 장학금을 장학기금에서 쓸수 있는지를 박성남 회계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음. 최순채 finance 위원장께서 training중인 동문에 국한하고, legal 자문을 통과한다는 조건으로 수여하지는 안을 제시, 다수결로 통과됨.
-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조세진 위원장; 서면보고): 지난 7월 시계탑에 함춘의학상 광고가 게재되었고,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후 모교 동창회 본부에 우송할 예정입니다.
- By Law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지난 1년간 통의해 왔던 '준회원' 설정에 대한 문안 교정후, 11월 22일 대의원회의에서 토의후 인준을 받을 예정입니다.
- Nominating Committee (김성환 위원장): 내년 회장후보를 아직 찾지 못했음을 보고함.
- Office Management Committee (강창홍 위원장): Office Manager 임금인상 요청에 대해 토론을 요청함. 김성환 전회장께서 Ad hoc committee를 구성하여 토론후 결정 사항을 다음 대의원회에 제출, 인준을 받으도록하는 안을 제시함.
- Green Project Committee (오무연 위원장): 젊은 동문들의 저변 확장과 육성을 위한 2개월의 활동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15분의 power point 발표가 있었음. 5개분과위원회 설립 및 추진계획에 대해 모든 참석한 임원 및 이사들의 열렬한 호응과 성원이 있었음.
- 이어 남명호(81)동문의 "Women in Medicine" 의제를 가지고 학장및 관련 교수들과 가진 meeting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Silver Committee (허선행 위원장): 이번 silver committee tour는 post convention tour와 병행할 것을 건의함.
-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서면보고): 지난번 지원한 CoCo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Fund에 여유가 있어 단체 하나를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전회장께서 가능한한 서부에 있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건의함.
- Directory Ad hoc Committee (문대욱 위원장): 내년 컨벤션 배부를 목표로 열심 준비하고 있음.
- Community Outreach Ad hoc Committee (이승호 위원장): 동문 각자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모아 주위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런 활동을 통해 동문들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project를 계획하고 있음. 지난 시계탑에 광고를 내, 참여를 원하는 동문들의 project도 모집하고 있음.

시간관계상 2015년 학술대회에 관한 보고는 11월 22일 대의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11월 22일 annual ball에 많은 참석을 부탁하며 참석한 모든 이사들께 감사 인사를 끝으로 10시 15분 (서부 7시 15분)에 제1차 이사회를 마칩니다.

Prepared by 총무 한창규(81)

## 2014년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수상자의 감사서신

안녕하세요. 지난 학기 서울의대 미주재단 장학금을 수혜 받은 의학대학원 1학년 최민아입니다. 재단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작년 여름,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 1차 서류 전형 발표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내딛은 첫걸음에서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은 온통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 5-6백만원씩 하는 의과대학 등록금을 무슨 수로 마련하여 학교를 다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훌륭하신 가르침 덕택에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길을 큰 무리없이 걸어올 수 있었지만, 저희 집의 금전적인 형편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 일을 하셨지만 잘 되지 않아 실직 상태이시고, 저와 대학생인 남동생, 3급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할아버지까지 다섯 식구가 어머니의 100만원 남짓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꿈을 쫓는다고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을 통해 학자금은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자, 생활비, 기숙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었고, 하루 빨리 취직하여 생활비와 동생의 등록금을 벌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류통과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지원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꿈을 일찌감치 포기한다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일단 꿈을 위해 도전해 보기로 결심하였고 합격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이 결정된 후에도 4년간 쌓일 빚 걱정에 잘 한 선택이 맞는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행정실에서 서울의대 미주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등록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큰 액수의 장학금이었습니다. 미주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한 학기 등록금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꿈은 제가 사랑하는 일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학부때

관련 수업을 듣고 주변의 생명과학, 화학 전공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뇌와 관련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뇌과학 연구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학대학원을 마치면 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해 실제 환자의 사례를 보며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의대 미주재단에서 받은 은혜를 학비 걱정을 덜고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의학자가 되어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갚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졸업 후 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서울의대 미주재단은 제게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주신 너무나 감사한 곳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와 주신 것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여 세상에 진 빛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최민아 드림

### 시계탑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2014년 9월 13일 토요일

-동부, NJ Fort Lee의 Double Tree Hilton 6:00pm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이선희 참석

-서부, CA Los Angeles의 JJ Grand Hotel 3:00pm / 이원택 참석

이사회 시작 이전 1시간 전에 편집위원을 모시고 10월호 시계탑과 문집 발행 등을 의논하고자 위에 제시한 시간에 모여서 Skype로 동시에 동서부의 위원이 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동영상이 실패하여 대충 넘어 간 것을 요점만 정리해 보면,

1) 시계탑 신문과 문집에 실을 광고는 반응이 미미해서 주소록 쪽으로 전환 중이며, 2) 신문 및 문집의 발행 부수를 1600부로 늘려서 한국 의대 동창회와 미주 총 동창회에 200부씩 보내기로 했고, 3) 앞으로는 기고자들의 사진 및 자기소개를 넣는 방향으로 했으며, 4) <농담골목>에 투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상금 100불을 거는 것을 토의했으나 일단 10월호에 광고를 내보고 결과는 지켜보기로 했다.

10월호 시계탑에서는 서인석 회장의 방침에 따라 젊은 세대의 폭넓은 참여를 추진하고자 <Green Project>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며 내년에 있을 'Photo contest'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이향우 동문을 추모하면서

신상균(58, 메릴랜드)

원철한 키에 건장한 체구라, 더 오래 살 줄 알았건만 먼저 떠나 버렸구려!

의예과 시절 시사영어 안호삼 노교수의 comment가 생각난다.

“香雨” 향기로운 비 “rain of fragrance” 라 詩的인 이름이로군”

1952년 일이나 꽤나 오래된 일화이다. 가장 뚜렷이 남아있는 나의 추억은 처음으로 나에게 클래식 음악을 소개시켜준 클래스메이트 이었다는 것!

라디오를 통해 유행가를 듣고 있던 나에게 고전 서양음악으로 귀를 번쩍 뜨게 해준 게 바로 향우이다.

루치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필두로 serenade by F. Schubert 등등...

손으로 태엽을 감는 축음기에 LP 레코드를 play하는 것이었는데, 동문 배영섭 군과 함께 일요일이면 부산 동래에 있는 향우 집으로 가서 과실과 점심 등을 대접 받으면서 하루 종일 유성기 편을 틀어놓고 앉아 지냈으니 다들 꿈 같은 친구들이었다.

서울 수복후 르네상스 다방에서 틀 만나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일본에 가서 Madam Butterfly 작곡하고, 중국 가서는 투란도트의 Nessun Dorma 작곡하고는 한국 와서 아리랑이나 춘향전 같은 오페라는 왜 작곡 안했느냐 하고, 푸치니를 원망하기도 했다. 다 흘러간 옛 이야기다.

유일하게 클래스메이트인 최정희 여사(병리전공)와 로맨스에 빠져 결혼, 의대 졸업시험 직전에는 수원까지 급우 전순일, 배영섭과 더불어 내려가 오징어 말린 마스크 쓰고 혼수한 지고 최정희 여사 친정댁을 괴롭힌 게 바로 나였으니 짓궂기도 했었지!

졸업 직후에는 이향우, 정순일, 김광섭, 배영섭, 나 - gang of five? 다 같이 해군 군의관으로 입대했으니 보통 인연(Karma connected)이 아니었나 보다.

# 급우 Dr. 한성학의 영정 앞에서

홍선경(64, 대뉴욕)

친구여, 그대는 토마토 모종을 키워 본 일이 있는가요?

나는 그대의 영정 앞에 서서 우리들의 일생이 일년생 토마토 나무와 별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분득 들었더오. 그대와 우리들은 서울의대라는 묘목원에서 같이 자라난 토마토의 모범종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 모종들은 대한민국 전역과 세계로 퍼졌고 그대와 우리들은 미국 땅에 뿌리를 내렸지요.

뜨거운 여름철 땀별 아래서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 얼마나 땀 흘리며 살았던가요?

그 한창 힘겹고 무더웠던 시절에 즉흥적 농담으로 우리를 허리가 부러지도록 웃겨 주었던 그대!! “You are the genius of wit and humor!”

익살의 농담과는 달리 조금 근엄한 듯한 모습 아래 깔려있는 그 자상한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그대의 성품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잘 새겨져 있다오.

그 한여름을 지내며 그대는 붉고 탐스럽게 잘 익은 네 개의 토마토를 키워내었지요.

어느덧 그 자랑스럽던 붉은 열매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좀 가벼워진 몸을 추스르려 했을 때, 아뵘새! 토마토나무

해군에서 제대한 후 미국에 와서 뿔뿔이 헤어져 살았고 초기엔 그래도 서로 방문하고 소식 전하면서 지냈는데 지난 10여간은 소식 끊긴 채 살다가 gang of five 중 셋은 가고 시카고에 있는 배영섭과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나만 달랑 남았다.

향우는 운동에도 소질 있어 테니스는 고등학교 대표선수였고 골프도 잘해 자기 소속 클럽 챔피언도 했고 fly fishing, skiing도 달인이었고 Met의 오페라도 무수히 보고 즐겼다 하니 한량임에 틀림없다는 아들 동준이의 회고이다.

나는 아직도 골프를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중이니 한심하도다.

아들 동준과의 최근 통화에 의하면 향우는 그동안 그의 부인의 care giver 노릇 하느라 자기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모양으로 지난 1월 보았을 때와 6월에 봤을 때는 체중이 60 파운드가 빠져나가고 acritis가 발생 검사결과 pancreas의 Ca로 chemo도 좀 받았으나 견디기 어려워했다고 한다.

금년 7월 중순 최정희 여사를 아들 동준이 살고 있는 근방에 남기고는 안심하고 떠난 것 같다. 이렇게 하여 클래스메이트끼리 결혼한 유일한 향우는 배우자 최정희 곁을 떠났다.

의예과 때 배 한 영화가 갑자기 생각난다. 어네스트 헤밍웨이 원작, 게리 쿠퍼와 임글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 제목은 For whom the bell tolls?

경상도 표준말로 번역하면 “鐘아, 니 와 우노?” Everyone has a story to tell, a unique story that is 이다.

아들 동준은 USC에서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하고 있으며 부인 Karnen와의 사이에 아들 셋, 첫째 딸 화진이는 약혼했고, 작은딸 효진은 아들, 딸 한명씩 두었고 그의 결혼식 때 (1997년 뉴저지에서) 내가 주례했던 생각이 난다.

먼저 떠난 향우의 명복을 빌며 나를 위해 좋은 자리 하나 잡아두라고 부탁하고 싶구나. 천천히 따라 갈 것이니.

“鐘아 니 와 우노?” 하고 다시 누구한테나 묻고 싶어지구나!

고통없는 세상으로 떠났으니 다 잊고 쪽 쉬기 바란다. 향우야!

Hang-Wu, my friend, rest in peace!!

의 푸른 잎은 누렇게 변하고 있고 싱싱했던 줄기는 말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죠.

그대는 또 먼저 시드는 아내에게 자기의 진을 다 짜서 부어 준 헌신적 사랑의 남편이었소.

어느 바람이 심하게 불고 간 날, 그대마저 철 지난 마른 토마토 나무처럼 쓰러졌고, 마침내 오늘 완전히 흩어 떨어져 버리는구려. 그러나 우리들은 그대 닮은 꾀직한 새 토마토 나무들이 귀여운 그린 토마토들을 안고서 그대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더오. 아마 그대도 땅속에 누워서 그 파란 열매들이 대견스럽게 커 나가는 것을 웃음 지으며 바라볼 것 같오.

후들거리는 다리로 아직은 버티고 서 있는 우리들. 먼저 간 그대 위에 애뜻한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언젠가 들어가 누울 그 땅속에 우리의 모습도 그려보게 되오. 먼저 간 그대, 어려서부터 참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또 알지요.

그토록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던 열기 있던 한 일생.

많은 친구와 이웃에게 훈훈한 추억을 심어놓고 떠나간 일생.

어디서나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매듭지는 한평생.

붉고 푸른 열매를 남겨놓고 이제 속절없이 사라진 한 포기의 성실했던 토마토 나무여!

그 이상 우리가 또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던 것을 바라겠어요?

이제 그대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 몸은 우주 속 한 줌의 흙

의 요소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그 삶의 자취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었던 향기로써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오.

그대는 이제 죽음이라는 과정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벗어났으니, 폭풍우 지나간 새벽 바다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정적과 평화와 기쁨의 새 세계 속에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친구여,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절대적 행복 속에, 영원히 영원히 잠기십시오.

# 마지막 통화

가버린 한성학 동기를 기리며...

오태희 (64, 커네티컷)

몇 년 전에 오하이오 컬럼부스에서 개업하다가 워싱턴 씨아틀로 은퇴한 한성학 군의 전화를 받았다.

한국에서 친지가 폐암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용이였다. 좀 머뭇거리기에 미심쩍어 다시 물어보니 사실은 자기 부인이 폐암진단을 받고 경황없이 나한테 먼저 알렸다고 했다. 그래서, 씨아틀 Fred Hutchinson Cancer Center를 찾아 가보라고 알려 준 것이 그와 마지막 통화이다.

얼마 안 되어 부인이 영면하였다는 슬픈 소식을 e-mail로 알았다. 부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또한 몸쓸 취(체)장 암이란 병마와 전쟁을 치르다니 이게 무슨 신의 섭리인가?! 하늘나라로 떠난 그에게 이제와서 미사여구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시요. 후기: Dr. 한은 대학시절에 저와 같은 “송” 자에 속하는 실험그룹, 특히 해부학 교실에서 같이 전전공공했었고, 미국 초년시절에 뉴욕시 근교의 마운트 버논에 있는 apartment complex에서 이웃으로 지나면서 부부가 레지던트 하면서 아이들 키우던 고달픈 삶을 서로 보고 느꼈고, 그 후 간혹 동창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참한 농담의 재치와 그 아래 깔린 진실하고 자상한 성격을 더 잘 알게 되어, 저희 부부가 마음으로 가깝게 느꼈던 친구입니다.

부디 잘 가거라! 여기 네가 말로 남긴 유모어가 떠올라 글로 옮겨 본다.

뉴욕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필요하여 보스턴 동물원에 알아보니 마침 한 마리가 있다고 했다. 잘 되었다 하고 원숭이를 데리러 사람을 언제쯤 보내면 좋겠느냐 물으니 이 원숭이는 아주 영리해서 보스턴에서 일반 버스에 태워 주기만 하면 혼자 뉴욕으로 찾아 간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하필 이 원숭이를 태운 버스가 뉴욕으로 오는 도중에 뒤집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승객이 모두 죽고 원숭이만 살아 남게 되었다. 경찰이 사고원인을 조사하는데 목격자가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원숭이를 심문하게 되었다.

경찰이 원숭이한테, 버스에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물으니, 아, 아, 소리를 지르고, 마시는 시늉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 그 장면을 보고, 경찰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술 마시고 소리지르며 주먹 싸움을 하는 수리장이 벌어진 버스가 뒤집어 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숭이에게 그래 너는 뭘 했느냐 물으니 버스운전대를 잡고 좌우로 돌리는 시늉을 하였다.

# 안개속에 보이지 않던 길

허서룡 (66, 위스컨신)

한 바퀴 걸어 나오는데 삼십분 걸리는 공원이 집근처에 생겼다. 겨우 한사람 지날 정도의 오솔길만 만들어 졌다. 언덕과 골짜기가 있고 연못도 있다.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듯 하다.

그런데 이 숲속의 공원에 가끔 짙은 안개가 덮인다. 그럴때면 나는 모네의 그림속으로 들어가는 듯 하며 헷세의 Im Nebel (안개속에서) 이 기억난다.

Seltsam, im Nebel zu wandern  
Kein Baum sieht den anderen  
(안개자욱한 이 숲속을 거니노라니 참으로 신비스럽구나.  
한 나무는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하고 )

안개와 나무를 인생에 비유했던 그는 마지막 구절에서

Leben ist einsam sein.  
Kein Mensch kennt den anderen  
Jeder ist allein.  
(저 나무들처럼 인생도 참 외로운거야.  
한 인간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뿐인 듯 외로이 서 있구나)



모기가 싫어서 여름 한철은 이 공원을 들어가지 않았다. 늦가을이 되면서 오랫동안 다시 들어갔다.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고나니 여름보다 이 숲속은 더 밝고 파란하늘이 보인다. 큼직한 고목 앞에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잎사귀 하나도 없는 이 고목은 난 아직도 살아있다는 듯 너희들도 어서 무거운 짐을 버리라고 한마디 하는 듯하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던 또 하나의 산책길이 이 고목나무 뒤로 보였다. 새로 만들었을까 없다. 나는 온길을 다시 되돌아 가봤다. 못 보던 또하나의 길-그것은 새로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조금전 걸어온 같은 길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지금 서있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 내가 걸어 왔던, 그렇게도 가까이 있었던 그 길은 안개와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안개가 사라져가는 이 숲속은 점점 환해지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던 또 하나의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 한바퀴 더 돌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숲속이 안개에 덮여있을 때 아직도 어린 나무들에는 잎들이 붙어있을 때 나는 이 숲속을 나왔다.

### 곽홍(51) 선배님께서 작고

존경하는 곽홍(51) 선배님이 지난 8월 10일 작고하셨습니다. 곽 선배님은 우리 동창회 제5대(1976~1977)회장을 하였고, 우리 동문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직후부터는 한국에 있는 병원에다 외상 본부(trauma center)를 설치하려고 여러 군데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부산에 있는 인제외과대학에 외상 본부를 설립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곽 선배님은 한국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늘 30분 이상 나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곽 선배님의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노용면(55)

동창회 5대(1976-77) 회장과 미주한인인사회 회장을 역임하시었고 동창회 발전에 노력 하시었으며 많은 기여를 하시던 곽홍 선생님이 8월 10일 병환으로 별세 하시었다고 합니다. 장례는 가족장이고 차후 Memorial Service 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문들께 알려 주시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Manuel Lee (李萬澤) 드림

### 오정희(51) 선생 과거장

오정희 선생이 아틀란타, 조지아주에서 2014년 8월 1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오 선생(89세) 1925년 8월 16일에 함흥에서 태생, 아버지의 이름은 오예묵, 어머니의 이름은 감지선. 함흥고보 25기 동창이며 1951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는 군의장교로 육군에서 근무하였고, 1957년에 도미. 1969에 캐나다 몬트리알에 있는 McGill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오 선생은 1959년에 아내 김순옥 여사(M.D.)와 결혼 하셨습니다. 오 선생은 1978부터 1998까지 아틀란타에 있는 Emory 의과대학에서 의사로 교수로 일 하셨습니다. 오 선생은 아내 순옥, 아이들, Helen, Frederick, Kenneth, Christopher 등 손자 손녀 12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장례모임이 8월 22일 저녁에 있었고 추도식이 다음날 아침 11시에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재는 사모님이 모시고 캐나다 몬트리알에 가신다고 합니다.

#### 오정희 선생을 회상하며

펜실베이니아주 Erie시 근처에서 한 30년 살다가 은퇴를 위하여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주변에 있는 소도시에 옮겼다. 어느 날 저녁 한인 음악 연주회가 있어 가보니 오정희란 분이 마침 와있어 같이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알고 보니 오선생은 함흥고보 나보다 3년 선배, 의학박사로 Emory 의과대학 교수로 있었다. 같은 함흥 출신, 같은 고보, 같은 의과대학, 6.25 때는 육군에서 동시에 근무, 도미도 같은 해 1957년, 등등하여 곧 아주 친하게 되었다.

거의 같은 때 함흥 출신 정신과 의사 김인환 선생을 알게 되어 셋이 참 친한 친구가 되었다. 오선생이 에모리 대학에 있는 관계로 대학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셋이 같이 참석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점심을 같이 하고 봄가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골프를 즐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은퇴하여 더 가까이 지냈다. 오선생은 인품이 단정하고 예의가 깊고 의모가 은퇴한 대학 총장이나 정치가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한 가지 오선생의 특징은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주 만나도 오선생을 보기만하면 미소가 저절로 나타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우리끼리 어디서 모일 약속을 한때 처음 질문이 오선생도 오십니까 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었다. 오선생이 빠지면 모이는 재미가 훨씬 덜했다.

이리하여 우리 모두 80 고비를 넘어 노년에 들어가니 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같이 골프치는것도 드물어졌다. 한번 골프 치러 갔을 때는 말은 안 해도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이 보였다. 앞으로는 만약에 골프 치러 간다면 아주 쉬운 코스에서 내가 운전하고 모셔야겠다고 느꼈다. 우리 셋은 서로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 믿고 자연스럽게 마침 함경도 함흥에 독특한 같은 DNA를 갖은 동족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우리와 우리 교회 장로 몇 사람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 장로중 한사람이 농담으로 "우리는 모여서 한군데 묘지를 사 놓았어요. 천당에 가면 날씨가 청명하고 아름다운 골프장이 항상 열려있고 또 우리 모여 합창단을 만들어 온종일 노래 부르고" 하여 모두 웃었다.

그후 별일 없이 지내다가 김선생이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입원하여 얼마 안가서 88세로 돌아가셨다. 오선생도 두 달 후에 89세에 떠나셨다. 홀로 남은 나는 천당에 있는 골프장에서 셋이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 - 이철남 (50)

#### 김형건(53) 동문 별세

오하이오에서 오랫동안 Family Practice를 일하시다 버지니아주에서 은퇴하셨던 김형건 동문님께서 지난 2011년 작고 하셨음을 뒤늦게나마 알려 드립니다.

#### 지상 통화

이 편집장님, 시계탑 게재 수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65년 졸업 동기들을 70% 이상이 미국에 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계탑 게재를 부탁 드리게 된것은 나를 비롯하여 많은 미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김중식의 별세를 모르고 있으며, 저도 요번 대한혈관외과 30주년 특별학회에 초청 연사로 가야 아주 친하게 지내던 김중식의 타계 소식을 듣고 좀 당황하였습니다. 무척 조용했던 중식의 소식은 흔한 인터넷에도 없었고요. 제가 추모사를 써서 시계탑에 보내려 하던 차 오세운 동문이 이미 써 놓은 것이 있다 하여 문인협회 회원의 글을 실리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글을 쓴 오세운 동문은 소아과 전문의로 한국 수필 문학상, 보령 의사 수필 문학 대상 등 많은 상 수상자이기도 하며 이미 6권의 수필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수필집 '아버지 광세'의 마지막 글이 김중식 이야기로 참 감명 깊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Dr. 이께도 보여 드렸으면 합니다.

### 송덕비

-김중식 동문을 추모하며-

오 세 윤(65, 한국)

계사년 설달그믐, 벗은 한 줌 재가 되어 유골함에 담겼다. 장지인 고향 북실로 가는 버스는 아침 여덟 시에 원지동 추모공원을 떠났다. 창밖으로 열게 비가 내렸다.

버스에는 미망인과 유골함을 든 말상제와 들쭉 딸 내외가 앞자리에 타고 그 뒤쪽에 일가친척 이십여 명과 고교동기 몇몇에 대학동창인 우리 넷, 심웅석과 이권호 동문, 그리고 21회의 신상만 선생과 내가 자리를 잡았다.

설을 맞아 귀향하는 차들로 전용차선도 가다가다 정체되어 버스는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장지에 도착했다.

마을 어귀 농촌가옥 체편관 마당에 정차한 차에서 내려 우리가 처음 마주한 건 뜻밖에도 벗의 송덕비였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 오석의 검은 송덕비가 장승들과 함께 추연하게 젖고 있었다. 3년 전 체편관이 지어질 때 함께 세워졌다고 했다.

모든 것이 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더구나 관직에도 있지 않았던 보통사람의 송덕비가 세워진 건 전연 뜻밖의 일이었다. 물론 벗이 집성촌인 그의 고향 마을에서 자랑스러운 인물이었던 건 기왕부터 알고 있었지만, 주민들이 송덕비까지 세워 기릴만한 공덕이 있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벗은 여러 면에서 언제나 모범이기는 했다. 대학 동기임에도 나는 첫 학기가 끝나기까지는 그와 교제가 없었다. 그가 같은 반에서 강의를 듣는 학우임을 의식하기는 고사하고 그런 급우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누구와도 현연히 사귀지 않았다. 가을학기에 들어 속리산으로 학년 전체가 단체여행을 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날 밤, 함께 어울리게 된 충청도 출신 중에 그가 있었다. 그는 태어나 자란 마을이 바로 옆 동네라며 새벽에 일찍 혼자라도 집에 가 어머니를 밧고 오겠다고 했다. 시골 마을의 효자였던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한마디 말도 아끼듯 신중하게 하는 그에게 나는 도시인과는 다른 향리의 선비 같은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예과 내내 나는 그와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다. 나 뿐 아니라 누구와도 그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성품 때문이 아니었다. 서울에 올라와 친척 집에 하숙하는 것도 버거웠던 그는 의과대학 6년을 거의 입주 가정교사를 하며 지냈기에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여려도 없었다. 하지만 본과 3학년올 마칠 무렵엔 나는 그와 많이 가까워져 있었다. 임의롭게 지내게 되면서 벗은 조금씩 자기 신상을 이야기했다. 벗은 처지가 낯달랐다.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를 졸업한 아버지가 6·25 전란 말미 자진 월북해 집에는 조부모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들 4남매만 남겨졌다는 것. 아버지 형제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군내 초등

학교 용지를 기증한 것에 더하여 중학교를 세울 때도 거금을 희사했던, 교육에 대한 의기(義氣)가 남달랐던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 돌아가셨다는 것. 이어 할머니마저 대학에 입학한 그달에 따라 돌아가셨다는 것. 일찍 장가를 간 형마저 지난해에 암으로 타계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집안의 종손이 되었다는 것. 어머니엔 자기만이 유일한 위안이고 희망이라는 것 등을 말해줬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생각하면 학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없노라고 했다.

실제 그가 졸업하기까지 한 일이라곤 중, 고 수험생을 가르치는 일과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것과 시간을 내어 시골집으로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게 전부였다.

대학을 졸업한 벗은 군에 입대해도 장교로 임관될 수 없었고 미국에도 갈수 없었다. 연좌제 때문이었다. 사병으로는 갈 수 있었지만 모든 급우들이 장교로 임관하는 마당에 졸병으로는 차마 복무하지 못했더라고 했다. 벗은 의사가 제대로 보충역에 편입하여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소아과를 전공하고 국립의료원과 경희의료원에서 얼마 동안 스태프를 하다 나온 벗은 개봉동에 진료실을 차려 의료 일선에 섰다.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근동에 곧 소문이 났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서 벗은 새롭게 천주교 성당에도 나가고 테니스를 시작해 바쁘게 주말을 보냈다. 하지만 적성과 성품에 맞지 않았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둘 모두를 그만두고 40 후반부터는 등산을 겸한 사진 찍기에 몰입해 열정적으로 산을 탔다. 동호인들과 함께 전국의 산을 누비더니 끝내는 거의 프로수준이 되어 각종 대회에 입선도 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 차례 전시회도 열었다.

그렇듯 정성스럽게 살던 벗이 특별성 폐질환으로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에 우리는 그만 당황스럽고 아연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태연했다. 인명은 재천인데 그만큼 열심히 살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며 오히려 우리를 위로했다.

모친의 유언대로 당신의 묘 옆에 안장되는 벗에게 묵념으로 작별인사를 한 뒤 나는 마을을 질러 내려다 시 그의 송덕비 앞에 섰다. 비석에 쓰인 그의 덕행을 읽으면서 벗과의 지난날과 그의 평소 품성을 회억 했다. 벗은 언행이 일치하던 덕인이었다. 옛말에도 숨어서 배운 덕이 더 무겁고 감추어 드러내지 않은 공이 더 값지다 했지만 벗이 말없이 배운 덕과 바라지 않고 이룬 공이 이토록 큰가 하여 어마지마 숙연해진다.

현(賢)도 우(愚)도, 착한 이도 악한 사람도 모두 이르거나 늦거나를 막론하고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명(命)이야 누가 되어 거역할 수 있으랴만 나는 이승을 떠나는 그 날까지 단 하루도 벗을 마음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지극히 검소하고 근면했던 벗, 천직에 정성스럽고 이웃에 신의 있던 의인(醫人), 수신(修身)에 게으르지 않고 재가(齊家)를 빈틈없이 한 지아비, 벗의 명복을 빈다.

2014년 1월 30일 북실에서

오세윤 email: damyee536@hanmail.net

김중식은 소아과 교수로 재직하다 개업하였고 한국 산악사외회 회원으로 자주 그를 사진전시회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은퇴후 고향 충청도에 내려가 지내었지만, 분단된 남북의 고통을 가장 많이 겪은 사연도 있었습니다.

나를 소개하라니 좀 속스럽군요. 저는 NYU Vascular Surgery Faculty로 있다가 1995년 민병철 은사의 부탁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중앙병원) 혈관 센터 소장 및 주임교수로 12년 봉직하다 은퇴 후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에는 로스앤젤레스 근처 Laguna Wood에 가서 3개월 정도 보내는 철새이기도 하고요. 한국에 가기전에는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총무 (박근수 회장님 때), 서울의대 뉴욕지부 동창회장 (1994~1995)을 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함춘 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인(65) 올림

■ 편집자 주: 보다 넓은 소통을 위해 편집에서는 여러 동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회,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이홍표(64, 남가주)



졸업한지가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반백년, 50년이 지났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지만 우리 18회 동문들도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것 처럼 의대 공식 행사로는 마지막인 50주년 행사를 지난 9월 22일에 가졌다.

9월 22일 오전 9시반쯤 동문 부부들은 옛날과 같은 곳에 그대로 있는 의대 본관 정문앞에 속속 도착하였다. 의대를 졸업한지 50년이 지난 지금, 모두 완숙한 노년 신사들이 되었지만 서로 곧 알아보고 반가운 재회의 뜨거운 포옹과 악수를 나누었다. 미국에서는 홍일점인 홍선경을 포함 23동문, 국내에서는 30동문, 사모님과 모두 96명이 의대 3층 강단에 착석하였다.

행사는 10시에 41회인 젊은 학장 강대회 교수의 인사로 시작하였는데 학장님이 자신은 우리 졸업 당시에는 갓난 아기였었다고 자기를 소개했을 때 우리 모두가 졸업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창회장 박용현 인사, 그리고 국내, 미주대표 (박효일, 이홍표) 인사를 거쳐 국내, 미주동창회에서 의대 발전기금으로 각각 천만원씩을 전달한 후 11시경에 폐회하고 의대 정문 앞과 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곧이어 학교 탐방으로 들어가 암병원 순람 및 6층 행정정원을 관람한 후 의생명 연구원 11층에 있는 그랜드 뷰 레스토랑에서 푸짐한 오찬을 대접 받았고 그때 유효명 동문은 즉흥시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다.

식사후 준비된 버스로 대부분은 경복궁을 탐방한 후 4시반에 프레지던트 호텔에 도착하여 한국동문들이 준비한 칵테일과 만찬을 만끽하였다. 김태환 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진행된 여흥에는 전동원, 최호영, 강석철 동문의 자제들인 프로페셔널 뮤지션이 첼로 연주, 스프라노와 바리톤 노래로 분위기를 한층 더 돋구어 주었다.

다음날 9월 2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한진관광의 편안한 디럭스 리무진 버스 3대로 총 78명이 서남부행을 시작하였다. 한국동문 임원들의(전동원, 엄익부, 김철규) 세심한 배려로 매일 탑승자 명단을 바꾸어서 모든 동문들

이 최소한 한번씩은 같은 버스에 타고 만나 여행하면서 서로 담소할 수 있게 해주었다.

첫날은 장장 327킬로미터, 군산에서 변산반도를 잇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 위를 달리면서 조국의 토목기술에 감탄하였고, 부안에서 꽃게요리로 중식후 고창에서 천년 고찰 선운사를 관람하였다. 담양에서 소새원, 죽녹원을 돌아본후 저녁식사로 대통밥과 떡갈비를 들고 소맥으로 적당히 취한 몸을 광주 헐리데이 인에서 풀었다.

다음날 24일은 따뜻한 가람비가 왔다갔다 하였지만 관계없이 해남에 가서 웅장한 대흥사를 관람하였고, 고산 윤선도 녹우당을 관람한 후 강진에서 남도 한정식을 즐겼다. 보성 녹차밭에서 녹차를 마신후 순천만에 있는 광대한 자연생태공원을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기기도 했다. 여수에서 잠어요리와 소맥으로 저녁을 하였고 투숙은 여수 히든 베이 호텔에 하였다.

9월 25일 아침에 여수 오동도를 포함한 후 전라 좌수영이 있었던 진남관을 지나서 광양 이순신 대교를 통과해서 통영 근처에 있는 독일광부를 위해 지은 독일마을을 둘러보았다. 오후에 거제도에 도착하여 처참했던 6.25 당시의 포로수용소를 관람하였다. 거제 대명 리조트 호텔에서 머물며 이번에는 재미동문들이 만찬을 준비하여 한국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주었다.

마지막날 26일은 아침에 통영에서 유람선으로 한산도로 가서 제승관을 관람하면서 다시한번 조국을 구해주신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를 드렸다. 케이블 카로 산에 올라가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한려수도를 조망한 후 굴밥으로 중식을 하고, 고속도로로 서울 근방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였다.

7시경 서울에 도착한 후 서운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

사실 이번 참가동문 대부분은 과거에 서남부 여행을 여러번 해보았지만 다시하는 이유는 같은 반에서 6년을 같이 지낸 허물없는 동문들과 며칠동

안이지만 마음놓고 한잔 술을 권하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기러 온 것이었다. 많은 동문들은 절을 관람하는 대신 절 앞에 있는 선술집 마루에 떼를 지어 앉아 빈대떡을 안주로 토산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하는 것을 더 즐겼었다.

참가 동문 거의 모두가 건강하였고 다음 55주년에 미국, 한국, 하와이 등 어디서든 다시 만나자고 하였는데 돌아온 후 앞으로 인생은 기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2~3년 안에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간단한 50주년 행사소식을 전한다.

### 50주년 행사 참가자:

강석철 강시웅 강신일 강창만 권정덕 김공배 김명재 김로경 김연기 김용두 김우건 김철규 김춘길 김태환 김현찬 남광현 박성덕 박영관 박효일 배진선 송원길 안연승 양운택 엄익부 엄용태 오수환 웅상길 유세환 유지소 유효명 이광신 이정은 이정필 이종성 이진오 이진웅 이창주 이홍표 전동원 조동준 조성준 최국진 최덕영 최준희 최호용 한달선 한병채 한종하 한태진 한영택 허선형 홍선경 황효섭 (53명)

### 재 회

반갑다.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아름답다.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귀하다.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행복하여라.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즐기자.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마음에 새기자.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기뻐하여라.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널리 알리자.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노래부르자. 친구여,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자. 친구여,  
우리의 만남을.

재회의 기쁨은  
영원한 것.

재회의 희열은  
이별의 슬픔에

비례하는 것.

재회의 열기가  
하늘에서 무지개를 이룬다.

재회의 숨결은  
사랑으로 승화한다.

재회의 속삭임은  
노래가 되어

우주를 흔들어 놓는다.

재회의 눈빛은  
마음의 소나타,  
내 영혼 깊숙히  
평화를 깃들게 한다.

재회의 노래는  
이별을 극복한다.

재회의 행복은  
이별을 승화시킨다.

재회의 즐거움은  
영원한 소망으로의 통로.

친구여,  
그대는 나를 나되게하는  
축매제.

친구여,  
그대는 영원으로 안내하는  
인도자.

친구여,  
그대는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살게한다.

친구여,  
그대는 영생에로의  
동반자.

친구여,  
노래부르자. 함께.  
환희의 송가를.  
영원히.

(2014년 9월 22일 서울의대 1964년 졸업 50주년 Reunion 기념 Luncheon Meeting에서 유효명 낭독)

### 동문 작품 소개

## 손 안 대고 코 풀기

김 명 원(68, 남가주)



위의 그림은 컴퓨터로 그린 그림이다. 흔히들 컴퓨터로 그리는 그림은 어린 손주들이 장난으로나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니면 Professional Illustrator들처럼 전문적 컴퓨터 실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만 가능한 걸로 생각 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니다.

i-Pad (또는 삼성 갤럭시 Note)를 사용해서 쉽게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거기에 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Photo Shop"이나 "Adobe Illustrator" 처럼 고급 프로그램이 아니고 컴맹도 값싸고 쉽게 배울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컴퓨터의 "킴"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돌리는 컴맹씨들께 특히 권하고 싶다. 이렇게 간단한 소도구로 이처럼 쉽게 그림을 그릴 수있게 됨으로서 컴퓨터 혐오증/ 공포증이 자연히 무산 됨은 물론 그렇게 해서 Wonderful World of Computer Literacy에 Ease-In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위 그림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1 2014 Edition" 에 "Sketchbook Pro" 를 4불정도 주고 다운로드 해서 그렸다.

전에는 야외 사생을 하러 나가려면 이젤, 캔버스, 물감통, 기름통, 우산, 페퍼타월, 쓰레기 통, 등등 잡동산이를 이고 지고 쪽팔리는 품으로 다녀왔는데 이제는 갤럭시 노트 하나만 달랑 들고 날렵하게 나선다.

그림을 그릴 때에도 지저분한 물감을 다루지 않아도 되고 다 그리고 나서도 붓 빨으라 빠렛트 딱으라 콧자락에 옷자락에 여기 저기 엉뚱한데에 물감을 묻히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풀기다.

비싼 물감이나 캔버스 등에 계속 돈 들일 필요도 없다.

삼성 갤럭시 노트 10.1은 5~6개월전에 \$499 주고 샀다.

Stylus (펜)이 딸려 온다.

i-Pad에는 "Procreate" 라는 프로그램을 써야한다.

15불 정도 하는 Stylus가 따로 필요하다.

"Procreate" 나 "Sketchbook Pro" 는 한 두번 해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배우기가 쉽다.

컴맹들에겐 "프로그램" 이니 "다운로드" 나 하는 용어 자체가 위압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런건 자녀들에게 부탁하면 다 해결 된다.

일단 준비가 됐으면 김명원 (C) 714-329-3500으로 전화 하시거나 myongwonk@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려 주시면 설명서를 프린트해서 우송해 드릴 수도 있음.

작가소개: Buffalo에서 청년기를 지내고 장년기에 남가주로 이주해서 part time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며 full time 화가로 활약하고 있음.



## 그림으로 쓴 글씨 정균희(72, 남가주)

글체는 소위 금문이라고도 하고 종정문이라고도 하는데, 갑골문(BC 1000-1500) 최초의 서체라면, 갑골문 다음에 나온 문자이다. 고대 주나라시절의 유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서체이다. 은나라 시절부터 한나라 시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여년에 쓰인 서체인데 붓맛은 볼 수 없고 솔이나 종에 새겨져서 종정문이라고도 칭한다. 갑골문의 회화적인 요소로부터 문자의 특징인 기호적인 요소까지 가미되어 한자 진화과정을 연구하는데도 흥미를 돋구는 서체이다.

유어예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서 직역을 하자면 "예술의 세계속에서 노닐다"는 뜻으로 동양 예술철학의 근원적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삶의 가장 이상적인 단계가 예술이라고 보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삶이 즉 예술이다.

오랜동안 화선지 위에 붓맛 변화로 작품하며 struggle 하다가 붓맛을 탈피해 보고파서 금문과 갑골문에 최근 심취 했었는데, 이 작품은 화선지 커버종이로 평상시면 버렸을 종이에 써본것이 화선지에 쓴것보다 맘에 들어 표구까지 하게 됐다. 같은 글을 다음엔 붓맛을 맘껏내서 또한번 써볼까 한다. (2014년, 미주서예협회전에 출품중)

\* 작가소개: UCLA 교수를 정년 퇴직하고 한인사회에서 part time 정신과 진료. 지난 25년전에 발행한 '시계탑 문집' 題字도 정 동문의 작품이다. 오는 11월에 발간될 제5집도 같은 작품을 사용할 예정이다.



## 자연의 모습, 들(2) 나두섭(73, 남가주)



알래스카 트레이시 아담스 협만의 떠다니는 얼음들은 마치 흰빙면의 얼음들 같다. 저멀리 소녀 글래시어의 안개긴 빙하는 해가 떠 안개가 사라지면 푸르고 흰색의 웅장한 자태를 나타내리라.



아치스 국립공원의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천년만년 풍우로 자연이 바위에 만든 구름다리. 무너질듯 말듯한 저 바위다리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말해주는 듯하다. 마치 자연이 설치한 개선문 같이.

작가소개: Kaiser 병원을 정년 퇴임하고, 현재 프로 사진작가, 아마추어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서 윤 석 (68, 버지니아)

해 떠오르는 이 아침 누가 지나간 슬픔을 알까? 혼령들이 떠돌던 이 강변을 기억할까? 곱게 단장한 강 멧장이 한강이 흐른다 지나간 피눈물 다 씻어버리고 콧노래 부르며 흐른다

눈물 젖은 풀잎들 노 젓던 뱃사공들 숨소리, 울음소리, 총소리 도시의 소음 속으로 다 사라지고 새 옷을 입은 강이 흐른다

출렁이는 물결 압구정에서 여울졌다가 강남 말춤에 잠시 흔들고 굽이굽이 김포를 지나 슬픈 강들이 서로 만나 무엇을 말할까? 강 건너 저편 언덕은 아직도 갈 수 없는 고향 땅 차라리 새가 되어 날아갔으리

모든 슬픔 다 감추고 멧장이 강이 흐른다 피어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치솟은 건물 사이로 강이 흐른다 안개가 걷힌 강변을 지나 희망의 새 천년을 우리의 강이 흐른다



작가소개: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국 현대시인협회 정회원, 미주서예대동창회보 편집위원

### Green Project Corner:



My name is Sunhee C Lee, a graduate of 81. I am a neuropathologist at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Montefiore Hospital, NY and also a researcher studying the role of inflammation in brain diseases. This year, I was appointed a Sigetop Publication Committee member to cover the Green Project (GP). It will be a fun-filled meaningful work as we have a new momentum with several highly spirited and dedicated alums 2014-1981 involved in the GP committee work. This October issue has several featured articles reporting these new activities. Any comments, please contact Sunhee C Lee ("GP reporter") at <leesteinway@gmail.com>.

### SNUCMAA-NA annual convention June 4-7, 2015 Green Project Sessions

This year, the annual convention will have newly structured, expanded GP representation, showcasing both the scientific presentations by the trainees and junior faculty (6 each) and the social networking GP forum that will include the five subcommittee reports and panel discussions. The details will be announced in our Facebook and we seek active input, fresh ideas and discussions by all alumni.

The following is the message by Dr Chang-Gyu Hahn (81), head of the Research Subcommittee and co-chair of the Scientific Symposium Committee. Dr Hahn is a Psychiatrist at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conducts NIH-funded research on molecular and cellular pathophysiology of schizophrenia and mood disorders. (Shown in photo with Dr Yoo Goo Kang, right, Scientific Symposium Committee Chair '71 during September 13th Board of Directors Meeting, NJ).



Dear friends,

I am Chang-Gyu Hahn, among the SNUCM class of 1981, and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the GP committee directed by Drs. Mooyeon Oh and Sunhee C Lee. I am writing this to reach out specifically to SNUCM alumni, who pursue or wish to pursue a career path that involves research. This initiative of the Green Project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supportive network for physician/scientists in the US.

Making a career as a physician is a challenge for anyone in the US. Adding research as another component to it indeed raises a distinct set of issues. As a physician on foreign soil, we are not new to unforeseen challenges. We certainly have learned to navigate rough terrains and rogue waves, and that on our own. It may be true though that many of us, if not all, might have wished at times for more connections, information or even wisdom, which seemed to be beyond our reach.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our classmates in Seoul might not fully grasp.

Could we picture something like this? How about we identify ourselves to each other and share our research/clinical interests? How about we try to find some common grounds amongst us? Maybe it is not such a bad idea for a neuroscientist to hear about recent progress in immunology or vice versa. As for mitochondrial biology, there might not be a huge distinction between disease processes in the heart vs. liver? For sure, genomic variants and epigenetic markings appear to be acting as if all organs are equal.

What about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us could be linked as mentors-mentees or even collaborators? Could this serve as a conduit via which to connect with the research community in Seoul, academic and/or industry?

Trying to establish something amongst alumni in the US is a dangerous proposition. We are all so busy and oversubscribed. Often times, we end up finding each other as unreliable partners and get disappointed. I know I have. If we start small though, and are good enough to let ourselves led by the interest, curiosity and love for science rather than by something magnanimous, maybe we could get somewhere? At the end of the day, it is not all dollars and cents or big name positions but the passion and love that keep us in this crazy business, research.

So please visit our Facebook and let us hear you and see where we end up?

### Annual Membership Due Drive

GP members, please send SNUCMAA of NA annual membership due \$125 (tax-deductible) for regular members and \$50 for trainees to SNUCMAA of N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rainees are residents, fellows, PhD students and postdoc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updating membership directory (many of you have already done this, so thank you!): Year of graduation, name in Korean, Chinese and English, home and work address, email(s), phone numbers (cellular, home & work) and fax.

For those who wish to have the SNUCMAA of NA office envelope and forms mailed to your home, please email Ms. Jamie Kim at [snuclmaa@yahoo.com](mailto:snuclmaa@yahoo.com) and provide your address.

### Green Project Women's Division Launched

The following article is by Dr Myong Ho (Lucy) Nam (81) who visited SNUCM this summer as part of the new Green Project initiative "Women in Medicine and Science". Dr Nam is the Medical Director of the Laboratories at Inova Fairfax Hospital in Virginia. The meetings were facilitated in part by In Sun Park (MEXIM president, 4th year SNUCM) who also crafted the seminar flier all based on online information (photo below) unbeknownst to Dr Nam!

시계탑 Green Project editor인 이선희 동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문기를 써 보내란다. 한글로 글을 써본지가 30년이나 되어서 막막하지만 용기를 내서 써보기로 했다. 더 더욱 난감한 것은 한글 자판에 익숙하지 못해 마감날까지 끝낼 수 있을지?

서인석 동창회장님께서 한국 방문중 (8월 26-30일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annual convention 참석차 경북 구미 시에 가게 되었음) 강대회 서울대학교의과 대학 학장님을 만나 뵙고 미주서울의대동창회와 서울의대가 서로 도움 수 있는 사항들을 상의 해 보라는 부탁을 이선희 동문을 통해 하달하셔서 학장님께 e-mail을 보냈더니, 즉각 답장을 보내 주시며 내 팍팍한 스케줄에 맞춰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박중신 Associate Dean for Public Relations와 동기 김석현 산부인과 교수가 같이 참석한 8월 25일 면담은 정말 화기애애한 meeting 이었다.



우선 내년 6월 미주 동창회 주최 annual convention에 10명 이상이 서울대에서 참석해 주시기로 약속 해 주셨다. 나의 관심사인 여성 동문들 및 여학생들의 지위향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재학생의 반 이상이 여학생이지만, 여성 교수는 가뭇에 콩 나듯이 드문 현실이다) 시간 문제이지 5-10년 이내에 10명중 3명의 교수가 되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있다고. 우리 세대는 때를 잘못 만난것을 어찌할고.

이제는 미주 동창들의 답례 차례 - 학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한가지: 제발 우리 학생들이 elective clerkship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여러 동문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느꼈던 기억을 되새겨 따뜻한 말 한마디, 저녁식사 대접, 우리가 일하는 직장방문 주선하기, donation to Green Project fund, 등등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않이 있을 것 같다.

9월 1일에는 MEXIM(미국에서 수련의 과정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들의 모임) club 여학생들과 간단히 점심식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학장님의 뜻에 따라 줄지에 "재학생과 미주 동창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강의가 되고 말았다. 전혀 강의 준비를 안 해간 상황인데, 한국인(특히 서울대인들)의 순발력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 구미에 체류하는 동안, 서울의대 경력개발센터에서는 Google과 LinkedIn을 통해서 나의 Bio를 간추려서 사진까지 download 하여 강의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를 다 마친 상황이 되어 있었다. 당황한 와중에도 power point를 만들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강의 전날 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Google에 들어가서 Inova website 찾아서 병원 사진들과 이름이 나있는 서비스 분야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준비해서 USB에 저장했다. 다음날 강당을 채운 후배 학생들을 보고서 등에 식은 땀이 흐르면서 어쩔만 잠 못잔 보람이 조금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가 끝난후 9월 새로 open하는 학생 경력 개발 센터를 방문하여 김봉연 센터장(소아정신과 교수)와 짧은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졸업 후 다양한 커리어 track을 택할 수 있는 support 시스템을 시작하고 있었다. 의대 졸업 후 대학과 입상의 커리어만을 택하던 과거에서, 여러 분야 (NGO, healthcare organization, public health, pharmaceutical/medical device industry, insurance, medical journalism, biomedical research, 등등) 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고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경력 개발 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 같았다. 이런 추세에 한 가지로 미국에서 수련의 과정을 원하는 후배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았다. 다시한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김봉연 교수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유감이었지만 미국에서 수련의 과정을 보내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신선한 감격 이었다. 지금까지 나와 공유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동창회가 의미있는 단체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된 귀중한 모교 방문 이었다. 또한 마취과 김희수 교수 (오무연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 동기 - 1989년 졸업 후배)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여성 동문들의 교류와 유대 강화를 위해서 우선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여자 동문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 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공동으로 하게 된것은 정말 기대를 갖게되는 outcome 이었다. (내년 6월 미주동창회 convention에서 결과 발표를 하려면 빨리 e-mail을 보내야 하는데..., procrastination 하는 나쁜 버릇을 어찌나.)

더불어, 아주 오랫동안,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기들, 노동영 (서울의대 암 센터 원장 - 내 실험 파트너였음), 이국현 마취과 과장 (연극반 동문) 그리고 박인애 병리과 교수 (유일한 여자 동기 교수) 들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고 기억에 남을 모교 방문이 되었다.

이런 좋은 만남의 기회를 만들게 해준 이선희 동문, 오무연 후배, 서인석 동창회장님과 강대회 서울의대 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Green Project Corner:



안녕하세요  
동문여러분, 올해 Green Project (GP) Chair를 맡고 있는 89년 졸업 오무연 (Mooyeon Oh-Park) 입니다. 저는 재활의학을 전공해서 현재 Kessler Foundation/Kessler Institute for Rehabilitation (Rutgers New Jersey Medical School)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s you know, GP was launched in an effort to build a platform to share common interests among young members of the SNUCMAA and to support our members in any way possible. Given the age range broadly defined (20's to 50's, spanning the baby boomer, generation X, and Millennial generations), finding common grounds among us could be a daunting task. Yet, I strongly feel that we have a lot in common coming from the same country speaking the same language, educated in the same school, and more or less going through the similar process adjusting to this new society. This year, the GP committee has set the primary goal as 'mobilizing the young members through a bottom up/horizontal mode of operation'. We have created a virtual space for young members' voice (e.g. SNUCM Alumni in US on Facebook -so far 97 members) where members can freely exchange ideas and interests. In parallel, we have been holding monthly face to face GP meetings, through which we get to know each other and plan for the future. The GP committee also initiated several subcommittee activities: 1) research career development, 2) private practice building, 3) women in medicine & science, 4) student electives/clerkship, and 5) social networking services. Some of the subcommittee activities are elaborated in separate articles in this issue of Sigetop. I would like to thank all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GP project, President Dr. In Suk Seo and senior members for their vision and unconditional support, and the GP committee for their unselfish dedication. We hope that more members will join the GP and continue to take small but meaningful steps for the next generation.

### Launching of monthly Green Project meetings 1st GP meeting (July 20th, 2014)



Our first GP meeting in July, Leonia NJ coincided with the visit by SNUCM medical students (MS) several of whom were finishing up their clerkship in the NY and Boston area. First row from left to right: In Sun Park (4th yr MS, MEXIM president), Jiyeon Shin (4th yr MS), Dr Mooyeon Oh-Park (89, Green Project Chair "Dr Oh"), Dr Sunhee C Lee (81, Green Project representative, Sigetop Publication Committee). Second row left to right: In Mok Oh (4th yr MS), A Ra Cho (4th yr MS), Dr Min Han (75, President, NY regional chapter), Dr In-Suk Seo (73, President, SNUCMAA-US), Dr Yong Eun (2014, research fellow at Harvard).

The meeting began early Sunday morning (78°F, sunny) with a tennis tournament between Dr Yong Eun and Dr Chong-Hyo Park (85, missing from the photo, husband of Dr Oh), then meeting over coffee at the BB bakery, followed by brunch at Miga restaurant next door, all impeccably planned out by president Seo himself! The meeting went well into the afternoon, but no one wanted to leave as we were having such a great time... This was where the seeds for two future events were planted: (1) Social Network Service for GP (Facebook Group launch) and (2) GP Women's Division Visit to SNUCM.

As of today (September 28, 2014), we have 97 members (this includes medical students) in our Facebook group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링크 <http://snucmaa.us/>. Dr Yong Eun (2014) and Dr Do-Eun Lee (99, Endocrinology, San Francisco, CA) serve as the admin for our Facebook group. The website now also includes abbreviated directory service for the GP members 젊은 동문 주소록 <http://goo.gl/cU2ryK> that was hugely updated and currently have information about 107 members. Dr Yong Eun manages this directory.

In addition, at Dr Oh (GP chair)'s request, MEXIM president In-Sun Park posted the following survey which sparked lively conversations on Facebook that are still ongoing. As Dr Do-Eun Lee put it

"정말로 폐북이 좋군요. 이걸 식당에서 3시간 밥 먹어도 안 나오는 의견 들일 듯. 아주 좋습니다. 어드민으로서 너무 부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똑 똑 하신 동기님들 자랑스럽고 그냥 다 좋습니다..."

### MEXIM Survey (미주 선배님들께 알고 싶은 질문들)

1. 각 지역별로 teaching hospital에 계시거나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후배들의 electives 및 clinical observership을 허락해주실 수 있는 동문 선배님들의 리스트를 알고 싶습니다.
2. 한국에서의 안정적이고 편할 수 있는 길을 두고 미국으로 가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3. 좋은 대학 병원에 매칭할때 advantage가 될만한 요건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미국에서 오래 산 경험 또는 시민권, 영주권이 실제적으로 도움되는지요.)
4. 반대로 비시민권자,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제약이 있을까요. 여자 의사로서 육아, 가정의 병행하기에 미국과 한국의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요.
5. 전공 지원 인기도를 알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칭이 어려운 과와 비교적 쉬운 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미국에서 매칭이 되려면 논문 3편 정도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논문이 국내 학회지에 올라간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미국 학회지까지 가야하는건지, 제1 저자여야 하는지 아니면 저자 목록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7. Seeking practical advice about preparing USMLE-especially from the young generations that moved to US less than 10 years ago.

### 2nd GP meeting (August 17th, 2014)

The August meeting was joined by Dr Chang-Gyu Hahn (81, Secretary, far right) from Philadelphia as well as Dr Yong Eun (2014, far left) from Boston. The "GP letter to young members" was finalized and later sent to ~ 100 young members via email. This letter summarizes the core mission of the new GP committee as well as the five GP subcommittees (see below & next page).



Aug. 20, 2014

#### 친애하는 젊은 동문들께:

금년 동창회의 임원을 대표해서 이 편지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주 서울 의대 동창회는 재미 동문들의 다방면의 활약과 활동적인 교류의 촉진이 되고자 애써왔습니다. 동창회의 창시 이래로, 저희가 수 세대에 걸친 발전과 발전을 목도하는 가운데, 근자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재미 동문의 다수가 연령이 높으신 선배님들이시고, 젊고 힘찬 후배님들은 소수라는 점입니다. 이 가분수적인 경향은 한편으로는 소수의 졸업생들만이 도미하는 근자의 추세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동창회가 젊은 동문들께 흥미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했는가하는 고려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근자 조사에 의하면, 1980년 혹은 그 이후 졸업생 중 86명이 재미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께서 이 편지를 받으시는 것은 동문께서 86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젊은 동문들의 저변 확장과 육성이 금년 동창회의, 바라건 데 향후 몇 년에 걸쳐, 특별한 강조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실, 이 일의 중요성은 동창회에서 이미 잘 인지되어 온 것이고, 따라서 The Green Project (GP)의 이름이라 지난 십 수년 간 추구해 온 바이기도 합니다. 금년을 계기로 저희 회장단은 젊은 동문들 Directory를 정립하고 GP Project를 재 활성화하고, 목표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아래 도표에 언급되었듯이, 저희가 Green Project 사업을 5가지로 세분하고자합니다 (see Table). 먼저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A) Research Career Development: 근자에 Research Career를 위해 도미하는 동문들이 비유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이 분들의 전반적인 career development, scholarship and mentoring 을 할수 있도록 infrastructure 갖추어보려고 합니다.

B) 모교를 비롯 모든 의과대학에 여학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Women in Medicine and Science"라는 명제를 함께 연구하고 논의할 여자 동문들 끼리의 연락을 활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C) Paradigm shift in Communication with and among Young members: 지난 20년간 미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종적인 구조로부터 횡적인 구조로의 전이일 것입니다. GP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선 우리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단은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이상을 귀담아 듣고 그것에 부응하기위해서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이 새로운 mode of operation (e.g. SNUCM Alumni in US on Facebook Invitation 꼭 받아주시고 idea를 많이 post해 주세요!) 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의 교환을 할것입니다. 저희 회장단은 젊은 동문 여러분들의 기여를 간절히 권합니다.

**Green Project Corner:**

**3rd GP meeting (September 13th, 2014)**



The third meeting was held in the afternoon of 9/13 Saturday, preceding the Board of Directors (BOD) meeting. This was the first GP meeting that was announced via Facebook/email and invitation was extended to all members. The meeting was a large success, attended by many new comers in spite of short notice: middle row, from left

to right: Dr Sunhee Lee, Dr Mooyeon Oh, Dr 윤정현 (2006, Fellow in Pulmonary Medicine, Brigham & Women's, Boston), Dr In-Suk Seo, Dr 박은경 (2000, Molecular Neuroimaging, Yale), Dr Myong Ho Nam (81, Laboratory Medicine, Virginia). Lower row: Dr 안철현 (2004, Rehabilitation, U Penn training, now at Good Shepherd Rehab Network), Dr Mooyeon Oh, Dr 변은광 (2000, Rehabilitation, Kessler Institute, NJ). Looking back, scheduling GP meeting on the day of BOD meeting was not a good idea as we had insufficient time to mingle - one thing that we would change if we could!

**Announcement of 4th GP meeting (October 19th, 2014)**

Our October meeting will be on 10/19 Sunday beginning at 11 am, at the BB bakery, 354 Broad Avenue, Leonia NJ. The main topic will be Private Practice Building. Dr Wonsok Shin (88, Geriatrics/Public Health) will join us from Virginia! RSVP to Dr Mooyeon Oh <mohpark@gmail.com>. All are welcome!

**First DC/ Maryland, Virginia regional GP gathering (September 27, 2014)**



The following is the Facebook Posting by Dr Kunhwa Kim (2012: John's Hopkins MPH) reporting the first spontaneous gathering of alumni in the DC area who met through the SNUCMAA-US Facebook group. To the GP committee, whose ultimate goal is to find each other and form a network of life-long friends and support group, this felt like home run! We hope that these small regional groups will spring out all over the country (two is a group) and there will be enough of us to go forward with the new momentum and continue our legacy.

“버지니아 우래옥에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DC에 계신 남명호 선배님 (3rd from left), 신원석 선배님 (far left), 박종철 선배님 (far right), 장세권 선배님 (2nd from left) 과 동문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2012년 졸업한 김근화(3rd from right) 이고, 2011년 졸업한 김유리 선배 (2nd from right) 도 함께 했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그린 프로젝트 이야기, 레지던시 지원, 커리어, 미국 적응 이야기까지 선배님들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많은 이야기 나누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많이 먹었지만, 무엇보다 가까이 좋은 선배님들을 알게 되어 오는 내내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Invitation to 2015 GP Scientific Convention Sessions**

Submit abstract to Dr Chang-Gyu Hahn <hahnc123@gmail.com>, co-chair of Convention, CC to Dr Mooyeon Oh <mohpark@gmail.com>, Green Project Chair. Our tentative plan is to hold two GP scientific sessions on the mornings of June 5<sup>th</sup> (Friday) and June 6<sup>th</sup> (Saturday). We secured 1.5 hours of GP slot each morning, with a total of twelve speakers, each 15 minute presentation.

We encourage those who are in training to present their projects (does not have to be a completed project with data/results). We expect this session to include works-in-progress type brainstorming presentations for those who are early in their training.

We also encourage faculty (especially junior faculty within a few years of completion of training) to submit abstracts. We would like to know your area of expertise/study. The talks in these GP sessions are not meant to be by accomplished experts in the field. Rather, we wish to use these opportunities to exchange and forge scientific ideas among members.

Travel awards will be given to selected trainees to cover expenses. Limited funds will also be available to non-trainees. For details, inquire <hahnc123@gmail.com> or <mohpark@gmail.com>.

**Abstract Deadline: December 20<sup>th</sup>, 2014**

**Format: One page, double spaced, font Arial 12**

**Please enter in email subject line:**

**“SNUCMAA of NA 2015 Convention Green Project Abstract”**

**Table: Five Green Project Subcommittees**

Subcommittee	Goals are to	Activities Proposed
Research career development	a) Build a network for researchers. b) Share information needed for career pursuit. c) Build mentor-mentee relationships.	Workshop in 2015 SNUCMAA of NA Annual Convention. Special symposium for young scientists On-line of face to face gathering to discuss relevant topics (i.e. pros and cons of research career).
Women in Medicine & Science	a) Promote women'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medicine. b) Build a forum to discuss job related issues specific for women.	Workshop in 2015 SNUCMAA of NA Annual Convention. Building an interface with the SNU College of Medicine to establish Group on Women in Medicine and Science (GWIMS) For more info see <a href="https://www.aamc.org/members/gwims/">https://www.aamc.org/members/gwims/</a> .
Practice building & planning	Share information bases on nuts and bolts issues of building private practice.	Periodic gathering with specific theme (i.e. loan applications, hiring staffs, billing,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Online job fair (match making). Global networking & job fair in 2015 SNUCMAA of NA Annual Convention.
Medical student electives	Provide opportunity for medical students to do electives in US medical centers	Medical student summer elective activities Review of experience essay & channel to the 시계탑 as a potential article under the Green Project Section. More activities with MEXIM (potential participation of Dr. Oh-Park in one of the biannual seminar April 2015-tentative date)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Enhance the interactive dynamics among members of SNUCMAA, graduates, and medical students of SNUCM.	Building Facebook group for SUNCMA in US and reorganization of current SNUCMAA websites (snucmaa.us) to be discussed.

## Green Project Corner:

### 미국 병원에서의 선택의학연구를 다녀와서

박인선 (본과 4학년)

두 달 여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 여름을 돌아보자니 한 여름 밤의 꿈을 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 무엇보다 새로운 인연들에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뉴욕에 도착하여 얼어있었던 순간부터 보스턴을 떠나며 아쉬워한 날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 지면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1. 컬럼비아 의과대학 병원, 재활의학과

컬럼비아 의과대학 병원(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의 실습을 위하여 뉴욕에 도착한 날, 잔뜩 긴장한 채로 타임스퀘어의 북적거림을 지나 낯은 지하철을 타고 168가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김혜경 교수님의 지도 하에 재활의학과 observation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과 4학년 실습 로테이션 중에, 환자-의사 관계가 특히 중요한 재활의학과가 매우 흥미로웠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인 미국에서는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컬럼비아 정형외과의 이영인 교수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김혜경 교수님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 덕분에 뉴욕에서 2주 동안 재활의학과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날 교육 담당인 젊은 교수님을 만나 ID를 발급 받고 스케줄 표를 받아, 그녀의 steroid injection procedure clinic과 outpatient clinic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녀는 spinal cord에서 injection level을 결정하는 방법과 같은 지식적인 부분도 설명 해주었지만, 그보다도 인상적으로 배운 점은 환자 한 명 한 명마다 그들의 불편감과 보호자의 어려움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자세였습니다. 만성 통증이 주소인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어눌한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보호자들이 caregiver로써 자신의 힘듦을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시간적, 심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김혜경 교수님의 소아 재활 진료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더욱 빛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신체 검진 또는 botulinum toxin 및 phenol injection을 준비할 때 겁을 먹고 울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료에 협조할 수 있도록 비누방울을 붙여 장난을 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아픈 아이에 대한 guilty-feeling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의 모든 이야기들에 경청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방은 어쩌면 경험 많은 의사가 3분을 보나, 30분을 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는 환자가 감정적으로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의료 행위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수가와 여러 가지 의료 이외의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빨리 빨리 진행되는 한국의 진료 환경이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공의 진료에서는 보다 상상했던 미국의 이미지를 담은 다문화적이고 평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설치된 통역 전화로 다수의 스페인어만 말 할 수 있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볼 수 있었던 점부터 교수-전공의-4학년 subintern 학생이 함께 케이스에 대하여 논의하는 분위기까지, 한 환자의 진료를 전공의 또는 subintern 학생이 주체적으로 본 후에 나름의 진단과 처방을 attending 교수님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open discussion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첫날, 북북히 듣고만 있다가 노교수님에게서 wake up! 하라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이러한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재미를 느껴, 2주차에는 컬럼비아 의과대학 학생과 단둥이 팀으로 cerebral palsy 환자의 진단과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기도 하여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은 한국보다 아날로그적이고 느린 방식이었지만 이것이 갖는 장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 2. 하버드 의과대학 메사추세츠 병원, 암 센터

그렇게 2주 동안의 컬럼비아 재활의학과 실습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이동하여 하버드 의과대학 메사추세츠 병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의 cancer center에서의 elective program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님과 MGH cancer center의 Dr. Ryan 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프로그램으로, 3주 동안(7월 7일~7월 25일) observation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겨울 선택의학연구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2년 전 Dana-Farber Cancer Institute/ Harvard Cancer Center에서 research했을 때의 경험으로 보스턴의 병원에서의 임상 실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의 lab work은 혈액 종양 환자들의 말초 혈액 샘플을 가지고 flow cytometry 및 ELISA로 T 림프구 표면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는데, 실험의 결과가 유의미하여 Blood에 게재된 바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는 그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종양 환자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실험에 임했던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과에서 임상 실습을 시작하기 전인 2학년이었기 때문에,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학년이 되어 이러한 선택의학 연구 기간이 주어지면 꼭 다시 보스턴에 와서 환자를 보고 싶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병원 실습을 하고 난 후, 이와 비교하여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의사를 할지 아니면 국내에서 생활을 할지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미국의 병원에서의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상과 연구의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어 지는지, 병원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병원 내의 관계는 어떤지, 병원 외의 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다소 소극적인 암환자들의 정신적 지지

와 암 생존자들의 재활 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4학년이 되어 보스턴에 다시 왔을 때는, 학교에서 임상 실습 로테이션을 모두 마치고 다양한 관심이 생긴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재활의학과 실습을 통하여 암 환자 및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 정신적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ancer center 내 여러 분과 중에서 매칭을 위한 관심 분야를 제출하라고 하였을 때, cancer survivorship rehabilitation/ psychiatric oncology/ hematoncology를 꼽았었습니다.

MGH에서의 첫 날, psychiatric oncology에 배정을 받아 electric convulsive shock therapy 과정과 참관에 동의한 환자들의 진료를 참관하였습니다. Electric convulsive shock는, 제가 학부 시절 뇌과학 실험실에서 뇌 가소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쥐 뇌에 자극 신호로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질병에 직접 적용되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electric convulsive shock 참관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post anesthetic care unit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케이스를 보여 주셨습니다. 마취하고 근육 이완제, 오른쪽 전기자극을 주는 과정을 세세하게 옆에서 보니, 사람의 머리에 사용하기는 두려운 방법이 아닐까하는 편견이 깨어지고 중한 우울증에 충분히 권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보고 겪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은 방식이 많습니다.

암 환자 또는 암 생존자의 정신적 질환 진료 참관에서 느낀 점은, 주변 caregiver의 지지와 환자 자신이 생산적인 일을 계속 하며 지내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체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의사의 역할도 당연하구요. 오전 동안 3~4명만의 환자들을 찬찬히 살피며 open question을 던진 후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수 있어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암 환자들에게 특화된 psychiatric support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alliative care team에서는 MD attending 뿐 아니라 nurse practitioner fellow선생님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주로 inpatient consultation shadowing을 하면서 장기 입원 암환자들 중 주로 pain control, mood, appetite and sleep problem에 대한 회진을 따라 다녔습니다. Family Meeting도 참관하였는데, 죽음을 앞둔 가족을 둔 보호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앞으로의 plan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Palliative care Grand Round도 참가하였는데 환자의 병 뿐 아니라 그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에 대한 태도, 생각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Team으로 일하는 사회 복지사가 시를 읽기도 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신선하였습니다. Teaching seminar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테이블에 소규모로 둘러앉아 서로의 케이스를 공유하기도 하고 management 방법들에 대하여 수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enign Hematology, GU cancer, Sarcoma, GY cancer and sexual survivorship의 다양한 클리닉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실습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클리닉에 참여하여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Inpatient, outpatient, bedside teaching 그리고 conference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활동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지향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단지 병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진지한 관계로서 환자-의사, 교수-학생, 많은 관계들이 이루어졌기에 더욱 재미있게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모든 실습 스케줄이 완벽하게 짜여 있고 그대로 따라 다니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대한 암이라는 분야 내에서도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보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제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스스로인데도, 이미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면 스스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잃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실습 중에는 어떤 암에 대해서 보고 싶은지, 어떤 환자를 보고 싶은지 계속 질문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자신이 요구를 하는 만큼, 딱 그만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에는 주어진 스케줄만 하고 나니 금방 끝나서, 이대로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 스스로 더 생각하고 고민하여 관심 분야를 표현하고, 그 department에 arrange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보고 싶다 또는 얼마 기간 동안 꼭 보고 배우고 싶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 흔쾌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분위기도, 진료하는 환자 군도 매우 다른 두 병원의 두 과에서의 실습이었지만, 환자-의사 관계를 포함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관심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 고민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4년 해외의학연구 그린프로젝트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 왼쪽으로부터 김경철, 박명강, 전석주, 안빈, 권순일, 김정은 국제협력실장, 박인선, 김연수교무부학장, 김한석 학생부학장, 명선정 교육담당교수, 조상욱, 김진아, 유혜리

# “적잖다”와 “늙잖다”

유 효 명 (64, 미시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던 말 중의 하나가 “적잖다” 라는 말이었다. 어른들은 행동이 바른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적잖다” 라고 칭찬을 해준다.

나이에 비해 꼭 성숙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영어로 말하자면, gentle 하고 well-mannered 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은 성장이다. 빠르게 성장하여 성숙한 인물로 사회에서 유용하고 유익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죽자 사자 좋은 학교에 입학하여 좋은 교육을 받아 사회에 기여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 모든 부모님들과 자신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본국의 학교뿐 아니라 해외의 선진국에 나아가서 자기분야를 갈고 닦아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지적으로 자기 전문분야에서 가장 앞선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요건이다.

성숙한 인물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중의 하나가 “적잖다” 라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순수한 한글표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이 쓰여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말이 쓰여지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이 어린 사람의 행동이 어린애답지 않고 어른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어린아이가 바람직스럽다는 전제하에서만 이 단어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진정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어린아이가 바람직스러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Well-mannered란 영어 표현이 “적잖다”라는 표현에 맞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로서의 well-mannered한 행동은 “어린아이답게 행동”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린 아이는 어린아이 다워야 한다. 자기의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장난도 치고 부모의 책망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맞는 행동 규범을 갖고 살아가야지, 어른들의 비위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stress만 안겨주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이답게” 잘못도 저지르며 “아이답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마음에 맞도록 아이의 행동을

조정하다보면, 부모와 아이 간에 갈등만 일으키게 된다.

아이의 성격과 능력에 맞도록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며 그 아이의 문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다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아이와 눈높이가 같아져야 부모가 원하는 것을 바로 전달,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체적으로도 어른이 키가 크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접혀서 아이의 키만큼 낮추어서 대화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위협적이지 않고 친구처럼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른이 “늙잖게” 되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나는 “늙잖다”라는 새 어휘를 제창한다.

내 나이 75세가 되어보니, “적잖다”라는 단어가 딱들어 맞는다. 늙었으니 나는 젊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어린아이때 들어왔던 “적잖다”라는 말과 정 반대로 “늙잖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려 한다.

생각을 늙은이답지 않고 젊은, 신선하고 새로운, 참신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려 한다. 새로운 일도 구상하고 사회 경험에 맞추어 필요한 일들을 창출해 내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

력하려 한다. 젊었을 때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오랫동안 살면서 느꼈던 일들을 새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고쳐나아가는 삶을 살려나.

그러기 위해서는 “늙잖은” 자세와 태도로,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과 추진력을 동원해 내야 한다.

몸은 젊었을 때와 같이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은 젊은이 못지않게 더 복합적이고 융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 여기에 “늙잖다”라는 새로운 한글 어휘를 제창한다.

“늙잖다”라는 단어의 뜻은, 나이로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같이 새롭고 활기있게 열정적으로 새로운 희망 속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 할 때 쓰는 단어라고 정의해 본다.

누구의 말과 같이 청춘이란 나이의 숫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따르는 말이라고 했듯이, “늙잖다”라는 말은 젊은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젊은 사람처럼, 아니 그 보다 더 새롭고 열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나아가 융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이제부터 “늙잖게” 살아가려나.

작가소개: 현재 미시간 주 Kalamazoo에 있는 Pine Rest Christian Medical Health에서 Part-time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음.

# 발 툽

김영애(71, 김성환 부인, 남가주)



발톱이 탈이 났다. 엄지발가락 네모난 발톱 아랫부분이 부어올랐다. 무언가에 불시에 공격받아 편치 않은 탓에 푸석푸석하다. 불운의 시초가 모호하듯 무시지도 않고 툽툽 소는 것도 아니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소리 내어 크게 울 수도 없고 심한 통증으로 주의를 끌 수도 없게 되자 발톱의 불편한 속내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압답하게 걷는 기분일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이 침침하고 거무죽죽해지는 것을 보면 우울증에라도 걸린 듯도 싶다. 순간적인 불행 바이러스가 피부 밑으로 잠입한 것이 분명하다.

수술한 무릎에 부담을 덜려고 수영을 시작한 첫날이다. 해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발톱 아랫부분과 맞닿은 피부에 칼을 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질통이 지나갔다. 면도날로 금을 긋는 듯 예리하고도 아슬한 통증이었다. 잠시 후 통증이 속지자 엄지발톱의 낫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나쁜 균이 그 주변을 침범하며 감염된 것이리라.

발-톱을 발음해 본다. 발에 달린 뾰족한 툽이다. 나무가 잘릴 만큼 예리한 날을 가진 툽은 발에 붙어 발톱이 되었다. 그래서인가, 먹이를 공격할 때의 독수리 발톱은 눈매보다 더 날카롭게 날을 세운다. 곤두선 발톱은 생명체가 적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것은 표적에 타격을 주려 집중된 독수리의 총칼이며 살아남기 위해 솟은 본능이었다.

한 시간이 넘게 지루한 순서를 기다리던 칸쿰의 비행장에서 줄에 없던 대가쪽이 마지막 순간에 들이치며 순서를 가로챈 때, 가슴 한편에는 뾰족한 발톱이 섰다. 스페니쉬나 영어로 이유도 듣기 전에 그것은 깊은 곳 어디에선가 공격의 발톱을 예리하게 세운 것이다.

“실례합니다. 저보다 먼저 줄에 서 있었나요? 저는 한 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뢰인 양 온몸의 신경에 순간적으로 터지는 열꽃과 함께 발톱은 날카롭게 날을 세워 질서를 무시한 사람을 할퀴기 시작했다.

“아 우리는 줄에만 서지 않았을 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벌써 오래전에 와 있었어요.”

타당하지 않은 설명과 반박이 이어지자 검사관이 달려왔다. 그는 무슨 일이며 앞서사람과 나의 중간에 권위의 발톱을 들이밀었다. 순간, 곤두섰던 나의 발톱은 털 밑으로 사라졌다. 고양이가 온몸의 기지개를 켤 때 발톱을 누그러뜨리듯, 중재인이 생겼으니 나의 발톱은 방어만을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사리에 맞던 나는 방어의 발톱만으로도 당연히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의 가슴속에는 공격적인 발톱이 하나씩 있다. 전당과 지옥이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듯 발톱을 곤두세우느냐 눕히려는 자신의 선택이다. 발톱을 세워 주변을 공격하느냐 그것을 눕혀 주위와 부드럽게 융화하는가는 자신의 가치관이며 삶의 철학일 것이다.

그러면 나의 발톱은 어떤 것일까? 항상 예리한 발톱을 세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공박만을 일삼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그러지다 못해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줄도 모르게 애매모호해져서 비굴하게 방어만 하며 세월 속에 밀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순간적으로 자기 성질에 못이겨 이치에 맞지 않은 공격을 했다 가 감당이 안 되자 순간 그것을 감춰 버리는 즉흥적인 일회용 발톱이 아닐까? 뚜렷한 삶의 잣대가 없어 긍정적인 공격과 계획적인 방어가 뒤범벅된 채 뒤죽박죽 엉켜버린 발톱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지켜주는 발톱을 은밀히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매혹적인 장미에 돌은 뾰족한 가시라든가 여러 보이는 야생화의 온몸을 감싼 까칠한 톱 털들이 그것이다. 어느 남자는 여자의 매력을 그녀의 발톱에서 찾았다. 야시시한 형광 빛 매니큐어를 발톱에 입혀 남자를 도발적으로 유혹하는 여자. 요염한 여성의 발톱은

# 무더기 무덤

-학살 당한 자들에게 드리는 헌사

정두현 (61, 버지니아)

모든 것 정지되어버린 싸늘한 공간  
느닷없이 총소리만 좁은 골짜기를 흘러나가 멀리 들렸을 뿐  
평화롭던 동네 불탄 초가지붕들이 더욱 공포에 떨었다  
까마귀들이 살을 뜯고 종장이 쓸고 간 피비린내 나는, 살점 썩는,  
어두운 골짜기의 세월  
공포  
아우성  
총알에 뚫린 피범벅의 심장  
살점  
종장이 다 쓸어 갔지만  
마구 널브러진 해골들의 엄숙한 시선만이 하늘 아래 남아 부름뜨고 있다  
피로 물든 우리들의 역사를 다시 쓰라고  
이 나라의 진실과 정의는 식민지의 구역질 나는 쓰레기 더미 밑에 숨겼냐고  
오늘도 무더기 무덤 속에서 학살된 자들의 고통소리 들린다  
오늘도 무더기 무덤 속에서  
총탄에 구멍 뚫린 혼령들의 분노의 합성 소리 들린다  
그러나 산자들은 말을 잃었다  
살아 남은자들의 얼은 마비되어 버렸는가  
오늘 우리들의 분노하는 심장 박동은 멈춰버렸는가  
아!  
산자들의 눈알은 누가 뽑아 버렸나  
산자들의 혀는 누가 잘라 버렸나  
산자들의 콧구멍은 누가 틀어막아 버렸나  
육중하게 무더기 무덤 앞에 서 있는 위령탑이 이슬 같은 식은땀을 흘리며  
파르르 파르르 경련하며 흔들리고 있다  
역사의 증언이다

암컷임을 강조해 수컷을 유혹함으로써 삶을 연명하며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외부를 향한 과감한 공격과 기본적인 방어를 하는 발톱은 힘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생명체의 자존심이며 울타리이다.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라도 수시로 침범하며 드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의 긍정적인 발톱은 조리 있는 언변으로 대변될 수도 있고, 반듯한 매너일 수도 있고, 자기가 맡은 분야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능력일 수도 있겠다. 또 각자의 역량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것도 자신의 발톱이 생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격이며 방어일 듯도 싶다. 그리 보면 세상은 모두 발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다.

원하기는 나의 발톱은 긍정적인 공격과 자신의 수비가 균형을 맞춘 삶이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다면 발톱의 의미같이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그 끝에 덮여 있는 단단한 물질로만 존재' 하며 주변을 부정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선인장의 가시같이 긍정적인 자신의 방비 정도로 유지됐으면 한다.

그리고 굳이 욕심을 더 부린다면 지혜로운 코끼리의 발톱 같았으면 좋겠다. 나약한 어린아이를 평화롭게 잠재우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 밀밭 속의 무거운 나무들을 묵묵히 실어 나르는 코끼리의 발톱처럼, 이웃들을 위해 말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되고도 착한 발톱이었으면 좋겠다.

작가소개: 이화여대 간호대학 졸업, 수필가 <사각지대의 앵무새> 등 저서, '무원문화상' 등 수상 다수.

紙上法醫

에스키모 여인



내가 캐나다의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 주 법의책임자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것이 1960년도 초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그곳에 부임한지 몇 년 후에 캐나다 정부가 미대륙 북쪽 끝에 있는 라부라도(Labrador)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를 뉴파운드랜드 주에 합쳤다.

라부라도에는 미대륙 원주민들의 하나인 에스키모(Eskimo)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 그곳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육지에서 동물사냥을 하면서 산다. 그런데 하도 추운 곳이라 땅과 바다가 함께 얼음으로 깔려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그 당시 라부라도에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여기저기 산산이 떨어져 있었는데, 마을에 들어서면 그날 그 마을에 있는 인구의 수가 적혀 있는 것을 종종 보았다. 하루는 마을 인구가 27명으로 적혀 있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 마을에서 공공건물이라고는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였다. 내가 행정적으로는 라부라도의 법의책임자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나의 사무실은 없었다.

어느 이른 가을날이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라부라도 북쪽에 있는 에스키모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그 시체를 내 사무실에 보낸다는 것이었다. 사건 내용을 물어보니, 페드로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범인은 그의 처가 아니면 그의 사촌 동생인 앤디 같다고 했다.

어찌된 셈인지 그 시체가 우리 사무

노 용 면(55, 대뉴욕)

실에 도착한 것은 내가 전화를 받은 지 21일만이었다. 일기가 너무 추워서 늦어졌다고 했다. 그래도 지금쯤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 본다. 시체는 공공 얼어 있었는데, 머리 오른쪽 후면에 있는 총상은 말라서 크게 벌어져 있었고, 그 주변이 불규칙하게 우그러져 있었다. 법의학 교과서 어디에서도 그렇게 심한 사후 변화를 기록한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냥총에 의한 밀접 총창입은 확실했다. 그 후 살해 무기가 피해자의 사냥총이었음도 밝혀졌다.

참고로 미주 원주민들은 동양 사람들, 특히 몽고인종과 생김새가 비슷한 데가 많다. 심지어는 위 앞니(문치)의 내면이 파여져 있는(scooped incisors or shovel-shaped incisors) 것도 이들과 동양 사람들에서만 볼 수 있다. 페드로의 문치 내면도 우리들처럼 파여져 있었다. 이들이 중국 대륙에서 시베리아를 걸쳐 미주 대륙으로 왔다는 설이 있지만, 그와 전혀 반대의 설도 있다. 나는 미주 원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문제에 대해 자주 거론한다.

주 경찰청이 수사관 한 사람을 사고 현장에 파견하였는데, 그의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페드로가 사망한 날, 그 동네에서 일년에 한번 있는 큰 축제가 벌어졌다. 사람들이 넓은 뜰에 모여,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놀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페드로는 자기 처를 보고 곧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아마도 처가 노는 꼴이 못마땅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자기 사촌인 앤디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녀가 몹시 열광적인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 같다. 페드로와 앤디는 외가

사촌이며 두 집 건너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처와 앤디는 초등학교 동기가기도 했다. 앤디는 다리를 절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은 결과였다. 그 외에는 그가 아주 잘 생겼으며, 재주가 많고 다채로운 사람이었다. 앤디는 어릴 때부터 마당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다리를 절기 때문인가 아니라 그의 양쪽 발들이 참으로 컸기 때문이었다(big flat-feet). 앤디는 재주가 많아 집에서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만들고 있었다. 낚시질이나 동물사냥은 다니지 않았다. 한편 페드로는 힘이 세고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에 이미 자기 집을 지었다. 페드로는 성격이 차가운 편이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가 며칠 걸려 낚시질하러 가거나 사냥하러 갈 때면 아내에 대해 매우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들에겐 어린 자식이 둘 있었다. 그 축제의 날, 그가 아내에게 집에 돌아가자고 여러번 일렀으나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혼자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축제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처가 자백하고 나섰다. 자기가 축제에서 한 행동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혼낼까봐 겁이 나서 잠자고 있는 그를 총으로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주에서 파견 나간 수사관이 그녀를 심문하니,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쉽게 자백을 했다. 앤디에 대해 물었더니, 그 남자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없이 부정했다. 수사관이 끝으로 앤디를 만났는데, 그가 페드로의 부인을 매우 동정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말할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수사관은 그것으로 수사를 끝내야 했다. 동네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중에는 '철저한 남자가 철저히 보복을 당했다.' 라는 것도 있었다. 그 지방 경찰이 그녀를 체포

했다가 곧 석방하면서, 집에 가서 재판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그 당시 에스키모 주민들을 위하여 일년에 두 번씩 순회 재판을 실시했다. 재판을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한 두 사람, 그리고 법의관이 함께 여행을 했다. 법의관실에서는 내가 보통 동행했다. 현지에 도착한 후, 재판이 있기 전날 밤엔 일행이 식사를 같이 하고 술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서로가 치열하게 공격을 하곤 했다. 이들은 놀랍게도 늘 공사를 분명히 구별하면서 일들을 처리했다.

문제의 케이스를 재판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민간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최북단인 라부라도 중간 지점에 도착하고, 그 후 공군 비행기로 더 북상했다. 이 비행기 밑에는 얼매가 달려 있어 얼음이나 눈이 있는 곳에도 내릴 수 있었다. 그날도 모든 곳이 공공 얼어붙어 땅과 바다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인구가 200명 정도 있는 마을이었다.

재판은 조그마한 초등학교 실내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내가 부검 소견을 간단히 설명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범인에게 몇 마디 질문을 던졌다. 그런 후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범인에게 설교를 하고는, 그녀더러 집에 가서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행실 바르게 지내야 한다고 했다. 형무소가 가까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1. Yong-Myun Rho: Official Investigation of Deaths in Newfoundland. International Microform Journal of Legal Medicine, Volume 6, No. 3, 1971.
2. 노용면: 총기 총상의 형태, 대한법의학회 세미나 특강. 1988년 10월.

백내장 수술 하면서

오형원(59, 남가주)

책을 읽기가 불편해져서 안과에 갔더니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조언을 받은 지 1년이 넘도록 수술을 받지 않았다.

수술을 받아야 좋아진다는데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80평생을 살면서 크건 작건 수술이라곤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도 그냥저냥 지냈으니 혹시 수술을 받지 않아도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니 무언가 불안감 초조함 같은 곳으로 항상 마음이 무겁고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에겐 큰 스트레스였다. 백내장(Cataract)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안구(眼球)의 입구에 있는 초차체(Lens)가 혼탁해져서 시력을 저하시킨다고 하는데 늙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란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

지난 9월 내가 태어난 달에 큰마음을 먹고 수술을 받았다. 회복실에 나왔을 때 오래도록 미루어 왔던 숙제를 했다는 성취감과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색안경 너머로 무언가 달라진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2-3일 후 수술 부위의 부종이 가라앉고 색안경을 벗으니 세상이 그렇게도 밝고 환하고 부실 수가 없었다. 문득 어린 시절 우리 집 담벼락에 내려

비치던 깨끗하고 환한 빛이 생각났다.

중년 이후 노안이 시작될 때 돋보기 안경을 처음 끼고 책을 봤을 때의 그 환한 기분을 능가하는 알 수 없는 기쁨과 같은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왜 진작 수술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스러움도 있었다. 그런데 옛 성현들의 말씀 중에 '나의 몸 전부와 마음에 달려있는 모든 것은 부모님으로 받은 것이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란' 말씀이 떠올랐다.

어릴 때 선천으로부터 배웠고 서예를 할 때 여러 번 써 본 터라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에 차일피일 수술을 연기해 온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내 마음대로 그 뜻을 다시 해석해 본다. 몸을 함부로 놀려 불구가 되거나 못된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니 불효가 되고 수술 같은 시술로 자기 몸의 일부를 변형 개조 개선하여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부모님께 효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나는 내 눈을 수술로 시력을 회복했으니 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로 눈의 일부를 다쳤으니 불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실 때에는 효도 한번 못해본 주제에 부모님이 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효, 불효를 이야기하다니...

아버님! 당신의 아들은 여든이 된 나이에도 아직 철이 덜든 것입니까? 혼자서 중얼거리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저자소개: 월남전 참전, 육군 중령제대, 서울의대미주동창회장 취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를 오가며 거주. 서도와 서각에 정진하고 있음.

농담 골목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가 그에게 청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친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자 친구가 남자에게 묻기를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가고 물었더니, 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인가고 물었더니, 그가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깨려고 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고 물었더니 그가 드디어 말하기를 그의 마누라라고 했습니다. (면)

왜 남자가 자기 처 보다 못한 여자에게 바람나지? 그 여자는 남자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면)

예쁜 아가씨와 할머니가 과일가게에 들렀다.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으며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 사과 한 개에 얼마예요?' '사과 한 개 정도는 뽀뽀 한 번 해주면 그냥 줄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럼 다섯개 주세요.' 가게 주인은 일론 사과 다섯개를 주면서 아가씨에게 입술을 속 내밀서 말했다. '자, 이제 뽀뽀 다섯번 해줘요.' 그러자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계산은 저의 할머니가 하실거예요.' - 이덕송

나이를 먹으면 관절들이 기상예보를 잘 합니다. (만)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기를 "할아버지는 무슨 책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으십니까?" 라고 하니, 할아버지가 "이건 역사책이다." 라고 하셨다. 아이가 그 책 제목을 보고 "이건 성에 관한 책인데요." 라고 하니, 할아버지가 "그래 그것이 바로 내 역사란다." 라고 대답했다. (철)

체중이 "200파운드" 나 되는 갑순이가 병원을 찾아가 어떻게 체중을 좀 줄일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의사가 "분식을 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녀가 "빵은 식전에 먹어요, 식후에 먹어요?" 라고 물었다. (김세-)

젊은 남자가 자기와 약혼한 여자를 실험하기 위하여 자기 친구더러 그 여자와 교제를 해 보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남자와 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자기와 약혼한 남자와는 파혼을 한다고 했다. 자기를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

편집자 주: 농담골목 현상금 - 지난 이사회에서 보고드린대로 매호마다 '기똥찬' 농담 한 편씩 뽑아 100달러씩 포상하기로 했으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가능한한 '독창적 작품' 을 뽑을 것이며 출판위원회 심사를 해야 되므로 수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갈릴레오 사건

'믿음으로서 이해할 것인가?' '이해함으로써 믿을 것인가?'

이원택(71, 남가주)



종교와 과학, 신과 자연, 신앙과 이성은 과연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당신이 신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종교와 과학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태리 'soap opera'라고 하는 갈릴레오 재판이다.

## (1) 서막

음악을 좋아하던 장사꾼 아버지에게 태어난 갈릴레오(1564~1642)는 어려서 음악과 미술에 재능을 보였으나 아버지는 그가 의사가 되기를 바랐다. Pisa 대학에서 의학과 철학을 공부하던 갈릴레오는 20세 때 Pisa에 있던 한 성당에 매달린 커다란 구리 등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등이 흔들리는 쪽에 관계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는 <흔들의 법칙>을 발견했다. 21세 때 돈이 없어서 의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공부한 후 25세 때 수학강사로 다시 대학에 돌아와서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속도는 무게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다는 <추락의 법칙>을 발견했으나 그때까지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교수단에 의해 대학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일설에는 그가 수백 명의 학생, 교수,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Pisa의 사탑에 올라가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려 그것들이 거의 동시에 착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나 이는 나중에 지어낸 말이라고 한다.

28세 때 Padua 대학의 수학교수가 되어 그 후 18년간 교편을 잡았는데 그의 명성을 듣고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 후 그는 돈을 좀 벌여 보려고 그동안 써 왔던 망원경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어, 달의 표면이 매끈한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며 달 자체가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태양)서 쏘여진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점, 은하수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의 집결체이며 토성의 독특한 모양의 테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610년, 46세 때 그는 태양계에서 제일 큰 목성의 주위에 있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하고 이를 그의 고향 Tuscany를 다스렸던 Medici 가문의 이름을 따라 'Medicean Stars'라고 명명했다.

갈릴레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폴란드 출신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1473~1543)로 그는 조실부모하고 카톨릭 교회 주교로 있던 삼촌에 의해 양육되어 한때 법학과 의학도 공부했으나 삼촌에 의해 교회 참사(Canon)에 서품되어 평생을 교회연금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는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며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는 태양중심설(heliocentrism)과 지동설(geokineticism)을 주장한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 천체 주기에 대하여라는 책을 써서 교황 Paul 3세에게 헌납하면서 그의 학설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인 우주의 섭리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신의 은총일 것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이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그는 교회 친구들의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책의 출판을 죽기 얼마 전까지 미룬 것을 보면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케나 한 모양이다. 그의 뒤를

이은 Galileo Galilei, Johannes Kepler, Isaac Newton 등도 열렬한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 (2) 제1막 (1913-1616)

제대로 된 망원경의 발명으로 명성을 얻은 갈릴레오는 Padua 대학에 종신교수로 임명되었으나 48세 때 Tuscany 가문의 철학 및 수학 가정교사로 자리를 옮긴다. 천문학을 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에 심취돼 있던 갈릴레오는 태양의 흑점이 변하는 것으로 봐서 태양의 회전이 행성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조류(潮流)는 지구가 움직이는 탓이라고 했다. 이는 태양은 자전, 지구는 공전한다는 천지동설이지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돌이켜보면 갈릴레오의 주장이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전장에 이기기 위해 낮을 늘리려고 태양을 정지시켰다는, 'Joshua 기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1613년 갈릴레오가 49세 때 Medici 가의 대공(大公) 부인이 갈릴레오의 제자이며 침묵과 근로를 중시하는 Benedict 파의 수사(修士), Castelli에게 갈릴레오의 주장과 성경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자 갈릴레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장문의 편지를 써서, 원칙적으로 성경의 해석은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천명하고 자신이 발견한 태양의 회전이 다른 행성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점이 바로 천동설이라고 변호하고 나섰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 구절을 비유나 풍자로 해석하는 것이 용납되는가였으나 그 당시의 과학자나 신학자 모두가 안 된다고 했다. 급기야, 근 2천 년 동안 내려온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미(Ptolemy)의 '지정설(地靜說: geostatic)'과 지구중심(geocentric)설을 신봉하는 보수파 교수들과 지식을 중요시하는 Dominican 파 목사들이 함께 뭉쳐 갈릴레오 사냥에 나서게 된다.

1614년 갈릴레오가 50세 때 Dominican 수사 Tommaso Caccini는 프로렌스에서 열린 목회에서 Joshua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코페르니쿠스, 수학자들 및 갈릴레오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몇 달 후 또 하나의 Dominican인 Niccolo Lorini가 갈릴레오가 제자 Castelli에게 썼다는 편지를 첨부해서 검열국에 고발했다. 검열국은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청문회는 당시 유명한 신학자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교황청 추기경 Roberto Bellamino로 하여금 갈릴레오에게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포기할 것을 제안해서 갈릴레오가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1615년 나폴리의 사제 Paola Foscari는 성경을 코페르니쿠스 학설에 맞춰 재해석해야 한다는 책을 써서 Bellamino 추기경에게 전달했는데 추기경은 Foscari와 갈릴레오를 모두 칭찬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훌륭하나 위험한 '가설'이라고 어정쩡한 대답을 했다. Bellamino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갈릴레오는 1616년 로마에 가서 반박문을 썼는데 이때 그는 자연철학(그 때 말로 natural philosophy)에서는 과학자가 신학자보다 나오니까 과학적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신학자들은 손을 떼라고 해서 Bellamino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Bellamino는 교황이 될 기회도 마다하고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나중에 성인의 반열에 오른 Jesuit지만, 갈릴레오보다 단수가 높은 '정치가'이다. 그는 자기를 일부러 찾아온 갈릴레오를 문전박대하기보다는 우회전법을 써서 결국, 교황청 검열국은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정간시키면서 Foscari 또한 매도했다.

이때 갈릴레오는 지적 작업을 중시하는 Dominican 파와 교육을 중시하는 Jesuit 파간의 세력다툼에서 Jesuit 편을 들었기 때문에 Dominican의 미움을 사서 한때 그가 과문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갈릴레오는 Bellamino의 해명서도 받아내고 교황의 신임도 재확인 받았다.

## (3) 제2막 (1623-1633)

1616년부터 1623년까지 갈릴레오는 프로렌스 근교에서 공부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1623년 오랫동안의 친구이자 그를 숭배하던 Jesuit파의 Maffeo Barberini가 새로운 교황 Urban 8세로 선출되면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된다. 갈릴레오는 '수학으로 쓴 자연' 책, <Il Saggiatore> 분석가)를 교황에게 헌납하고 교황은 시 한 수를 써서 갈릴레오를 칭송했다.

1624년 갈릴레오는 아마도 그가 1616년에 받은 판결을 번복해 보려고 교황을 방문했는데 교황은 비록 판결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의 정체가 궁극적 의도를 알아 낼 수 없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지동설'에 대한 책을 써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프로렌스에 돌아온 갈릴레오는 6년에 걸쳐 Ptolemy와 코페르니쿠스 학설을 비교한 <On the Tides> 조류에 대하여)란 책을 써 가지고 1630년 로마로 가서 교황으로부터 책 제목을 <A Dialogue on the Two Chief World Systems> 양대 세계체제들의 대화)로 바꾸어 받았고 당시 비서실장이자 검열실장이던 Niccolo Ricardi의 재가도 얻어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632년 <양대 세계체제들의 대화: Dialogo sopra i due massimi sistemi del mondo, tolemaico e copernicano>란 책이 프로렌스에서 출간되었으나 이 책에서 갈릴레오는 교황의 주장을 마지막 페이지에, 그것도 'Simplicio(=simpleton)'라는 한 바보의 입을 빌려 피력하고 있다. 상투 끝까지 화가 난 Urban 8세는 "나는 속았노라!"를 연발하면서 갈릴레오를 청문회에 회부시켜 버렸다. 갈릴레오는 "기억이 없다"거나 "실은 태양중심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변명을 했으나 청문회는 결국 1614~1616년 갈릴레오가 Bellamino에게 한, 지동설을 믿거나 가르치지 않겠다는 서약을 빌미 삼아 1633년 6월 그를 종신형(사실은 가택연금)에 처해 버렸다. 갈릴레오는 과학자, 철학자일 뿐 아

니라 수려한 문장가였다. 또한 풍자(비꼬기)에도 재주가 뛰어났던 모양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갈릴레오 사건은 일종의 '필화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든 말마따나 너무 뛰다가 떨어질 때 다리가 부러진 꼴이다.

## (4) 후막

그러나 갈릴레오 재판 중 석연치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다. 첫째, 제1막에 나오는 Castelli 한테 쓴 편지 중 3 군데가 '나쁜 표현'으로 지적을 받았으나 이중 2개는 Lorini가 제출한 사본에만 있고 갈릴레오의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Dominican 파인 Lorini가 갈릴레오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고의적으로 삽입한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Bellamino 와의 서약서에서 갈릴레오의 서명이 빠졌다는 것. 셋째, 마지막 판결문에 재판관 10명 중, 교황의 조카, Tuscan 대사, 스페인 추기경 등 3명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갈릴레오 재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종교와 과학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쇼'라고 보는 편이 좋을 듯하다.

그 당시 정황은, 독일을 중심으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해도 좋다는 개신교 세력이 일어나 정통 카톨릭 세력인 합스부르크 왕가를 몰아내려고 해서 소위 30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별거지인 스페인 왕족이 교황을 억박질러 개신교들에 대한 '성전(Holy War)'을 선포하라고 할 때이다. 법학박사 출신에다 인본(人本)주의자인 Urban 8세가 스페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교황청의 사무총장쯤 되는 추기경이 스페인 측과 손을 잡고 교황을 퇴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판에, 그 사무총장은 계속 갈릴레오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교황의 심기를 자극했다. 일설에는 Urban 8세가 동향 친구 갈릴레오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상대방에게 본패를 보여주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학설'이 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고 할까?

그 후 1979년 교황 John Paul 2세가 갈릴레오 사건을 재심하라는 명령을 내려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갈릴레오 재판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갈릴레오가 확인했듯이' 믿음과 논리는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했다. 좀 미심쩍었던지 John Paul 2세는 1998년 <믿음과 논리>라는 회람을 돌리면서, 진리의 탐구에서 종교가 우선이고 과학은 차선이라는 St. Augustine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ну이, 매부 다 좋지만, ну이가 더 좋다는 애기로 무덤 속의 갈릴레오는 '내 이미 다 알아봤노라!'했을 것이다.

작가소개: 노인정신과 전문의, 주말 농장을 경영하다 현재는 시와 수필 쓰기로 소일하고 있음.

#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 모집하는 원고 내용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조사, 기행문, 서평,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다만 정치나 종교적인 내용은 편집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아래한글, Wor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모든 산문은 200자 원고지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

Won T. Lee, MD  
4525 Atherton St., Long Beach, CA 09815  
(O) 562-961-0155, (C) 562-743-1436, (F) 562-961-0161  
eMail: wonlee0120@gmail.com



# 판랑 (월남) 이야기

서영일(68, 디트로이트)

1969년 11월 월남 백마사단 30연대 일원으로 참전하고 있었다. 남쪽나라 캄란의 하늘은 꽤 맑았다. 제비가 뜰에 나란히 앉아 있기에 물었다. '너 저 멀리 서울에서 왔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의대를 졸업한 직후 입대하여 일년반 만에 즉, 월남에 온지 2달이 되었다. 보병연대 의무중대 군의관 시절이다. 사단 작전에 따라 연대 주력부대는 출동했고 나는 남은 의무중대를 이끌고 중대장으로 잔류부대에서 남아있는 환자병사들을 돌보는 지극히 한가로운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는 위치였다.

당시 잔류부대를 지키는 부연대장이 호출한다. 평소애 나오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시불시불 하면서 그 앞에 섰다.

"서중위 저 저기 판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월남 중놈 몇이 죽었데. 말로는 한국군이 썩 죽었다는데 누가 시체검안(檢案: 의사가 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을 가서 해야겠다. 여기서 차로 한 시간 반쯤 걸린다는데... 그 앞에 우리 사단 소대가 얼드려 숨어있어. 그곳에 가서 일개 분대씩 앞뒤로 트럭에 태우고 기관포를 달고 자네는 중간에 끼어서 산에 있는 절에 다녀와야겠다."

명령을 받고 30분 후 지프차에 위생병, 통역병, 운전수, 나 넷이 신작로를 달려 넓은 벌판 논 가운데 조금 마른 땅에 두더지처럼 얼드려져있는 우리 소대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짐채만 하게 모래주머니를 쌓고 그 밑으로 옆으로 구멍을 뚫어 들락날락하며 살고 있다. 보병중위 소대장이 하는 말이 "저 앞산 십 리 안쪽에 험준한 산줄기가 있는데 그 속에 큰 절이 있대요. 거기에 웬 한국군 옷을 입은 병사(따이한)가 가끔 놀러오곤 했는데 그제 아침 불공드리려 할때 이 따이한들이 M16으로 드르르해서 네 명의 사람을 죽이고 없어졌대요. 현대 그때 노파 하나가 살아서 하는 말이지요. 그 따이한은 전에도 가끔 놀러오던 사람이래요." 소대장이 계속 말한다.

"그 산 속에 온통 베트남 천지인데 뭐 한국군이 꿩질라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편이 아니라 이북 빨갱이 놈들 짓이겠지요."

어쩔거나 나는 그 절에 가야하니... 2대 트럭, 2개 분대 기관총... 어찌구하며 소대장에게 중얼대니까 그는 나를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우리는 이 조그마한 두더지들이 다예요. 트럭 기관총 그런 것들 없어요. 그런데 저 산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해요. 알아서 하슈우우..." 한다.

우리는 우선 판랑 시청으로 갔다. 시청홀에 웬 사람들이 꼭 차있고 앞에는 웬 노파를 앉히고 좌우로 사람들이 둘러싸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각처에서 물려온 국제뉴스기자들이고 노파는 그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을 때마다 노파는 '따이한 따이한' 소리지르고 손사래를 치고는 혼절하는 듯 옆으로 쓰러진다. 우우... 사람들은 따라 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 슬그머니 이거 잘못 걸려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통역병이 경찰이 왔다면서 빼라인지 혹은 벽보를 뜯은 것이지 분명치 않은 종이 한 장을 보여준다. 종이에선 중들의 사진이 들어 있는데 아주 늙은 중하나, 40-50대 둘, 젊은 여자중 하나다.

통역병이 통역하는데 그 내용인즉 "동포여 그제 밤 산중 절에서 거시

기 존경받는 노승들이 거시기 한국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 진시황과 같은 만행에 필기하자." 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당시 온 판랑 시가가 울근불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 참 옹게 걸렸구나' 생각하며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통역관이 푸른 제복을 입은 월남 졸자 한 명을 내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시체가 어디 데리고 와서" 한다.

그래도 나는 시체를 검안하고 가야 하니까 반가워서 가자고 했다. 우리네 명이 판랑시내를 벗어나 시골길은 사이로 15분 20분쯤 달렸다. 논 가운데 유치원 운동장 정도의 마른 땅에 큰 절이 있었다. 좁은 다리를 건너 마당으로 들어서니 매향사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들어오는 우리를 음침하게 또 침울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차가 멈추자 주위를 뿔 둘러싼다.

나는 살려고 번듯 생각이 들어 생전 안 해보던 짓을 했다. 두 손을 합창하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래도 무표정하게 있으니 무슨 신호가 나기를 기다리는 듯 서 있던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황포를 입은 50대 나이의 중이 얼굴을 바짝 쳐들고 내게로 다가온다.

열린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떡거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내 왼편 옷 저고리 칼라에 있는 군의관 배지를 가르키면서 "딱시 딱시"를 웨쳤다. 그 중이 돌아서서 "딱시 딱시" 하며 중얼거리니 온 마당이 '딱시'하며 술렁거린다. 통역병이 이들을 타서 시체를 검안하러 왔다고 하니 중이 앞을 서서 안내한다. 내 뒤로 위생병, 경찰이 그들이 열어준 사람들 사이로 절 안으로 들어갔다.

문지방도 없는 그냥 평편한 법당 안에는 큰 아주 큰 부처가 앉아있고 앞의 테이블에 직경 3인치가 되는 아주 빨간 양초가 두 대가 불길하게 느껴지는 검은 그을음을 내며 평평평평 타고 있었다. 가운데는 바나나, 망고, 선인장 열매 등 과일이 쌓여있고 백여 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법당 안에 꼭 차서 우리들의 뜻밖의 출현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테이블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돌아섰다. 15초나 지났을까 생각되는데 뒤통수가 땀 하고 기운이 슬그머니 빠져서 나는 맥없이 주저앉을 것 같았다. 나 여기서 25세의 나이로 맞아 죽는구나 하는 확신도 들었으니 이상하게도 이 순간부터는 오히려 악이 받쳤다. 허리에 45구경 권총 한 자루 이것으로 발악을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터이지만 그래도 나는 빛나는 '따이한' 죽을 때 죽더라고 겁먹지 말자 하며 어깨를 폈다.

시체들은 절 뒤 다른 방에 있다는 것이다. 좁고 캄캄한 긴 복도를 지나 사람들을 밀치고 중을 따라서 들어갔다. 우우... 소리는 여전히 울음소리와 함께 들리고 우리는 별안간 천정이 높고 창이 많은 큰 방에 들어왔다. 빙빙 둘러 있는 좁고 높은 창들은 유리 없고 철창살에 사람들이 잔뜩 매달려 나를 내려다본다. 방 한 가운데 야전 들것이 네 개, 주황색 포로 덮혀있는 사람들의 윤곽이 보인다. 그 앞에 또 테이블 과일더미, 양쪽에 불길하게 보이는 촛대 검은 그을음, 또 다시 합장을 몇 초간 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위생병은 있는데 통역, 경찰은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를 받아 걸고

수술 장갑을 끼고 공책을 준비시킨 후 첫번째 들것에 합장을 한 뒤 슬그머니 황포를 조심스럽게 조금 들어올리니 벌어진 두개골에서 흘러나온 뇌 조직이 보인다. 내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던 월남사람들이 우우... 소리를 내며 울고, 자기네가 본 것을 뒤로 전한다. 또 우우... 더 우는 소리가 가득하다. 더 보겠다고 밀치는 바람에 쪼그리고 있던 나도 시체 위로 꼬꾸라지고... 성난 얼굴로 나는 일어나 마스크 위의 눈을 뚫 수 있는대로 불랑스럽게 뜨고 송장을 만지던 손으로 그들을 밀어내고 입으로는 '실로이 실로이(실례합니다)' 하면서 뒤로는 위생병에게 총알의 사입구 사출구 어디 어디 하며 의쳤다. '직접사인은 대뇌 파손, 총상, 어찌구' 하면서 말하는데 곁에서 있던 위생병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는 하얗게 질려서 넋을 잃고 있었다. "임마, 야" 한마디에 그의 혼이 되돌아와서 손을 놀리며 받아 적는다. "직접사인- 간접사인 뭐뭐" 하며, 어깨 가슴 배 다리를 합부로 벗기지 못하고 황포 밑으로 살짝 들여다보고 계속 입으로 씨부렁거리면서 다음 시신을 보고 '제2 총상, 제3 총상' 하며 황포를 다시 덮고... 그 앞에서 또 합창하고 고개 숙이고 다음 들것에도 같은 예를 올리고 황포를 올리니 총알이 오른쪽 눈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갔다. 다음 시체는 아주 젊은 여자 중인데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로 총상을 입었다. 또 하나는 머리를 관통해서 자리다툼하다 떨어지는 사람들 소리...

나는 두어 번 더 떠 밀리고 옆어지고 이젠 겁나는 것도 없고 빛나는 '따이한'이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시체만 검안하는데 열중하면서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의외하게 검안을 끝내고 단정하게 황포를 덮어놓았다. 다시 테이블에 합창하고 더욱 여유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니 웬 일인지 이들이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었구나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오히려 솟아나는 것이었다. 일을 끝내고 우리는 복도를 지나 합창하고 또 인사하면서 마당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다시 나타난 스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다시 주위에 합창하고 서서히 움직이는 차를 타고 무사히 길로 빠져나왔다. 우리가 다리를 건너 나오는데 어느 틈엔지 그동안 보이지 않던 통역병이 벌써 뒷자리에 날래게 앉아있다. 월남 경찰은 어디서 잡혀 죽었는지 잠적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운전병에게 어떻게 출구 쪽으로 차를 돌려왔느냐 물으니 내가 절 안으로 들어간 후 유사시에 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밖의 군중들이 차를 에워싸고 안에서 무슨 신호만 울리면 지시될 행동으로 울길 작정처럼 보였단다. '가자' 하는 내 한마디가 있을 후 차는 용케 움직이고 길이 열리고 다리도 이렇게 살아서 다시 건너오고... 차차 속력을 내서 신작로에서 100km로 달리면서 보니 아직도 내 얼굴엔 마스크가 걸려 있었다. 결국 장갑도 벗고 나니 절 안에서 보낸 진통같은 시간이 꼭 내 일생 중에 가장 길고도 긴 한 시간이었다.

연대에 돌아와 부연대장에게 자세히 보고를 하고나니 그가 하는 말인즉 "거 젊은 여자 중 거 거 강간당한 흔적이 있었나?" 하며 묻는다. 내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총알자국만 꼼꼼하고 사람들이 우는데 여자 중 바지를 가위로 찢고 가랑이를 들추지 못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우리 몰살당했을지도 몰라요." 그의 말이 "거 거시기 시체검안 한번 잘 했구만." 한다. 나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손이 머리까지 올라갔다대 대신 모자를

## Hello, Prostate!

일구 이흥빈(63, 대뉴욕)

오줌줄,  
선창게 한참오래 시작인게  
'전립선' 인건 뻥한게

가만 생각이,  
오줌길 느스케  
때없이 'ecstasy'여야 하잖느냐.

오줌발,  
맥없게 한참 질금거리게  
'전립선' 인건 뻥한게

생각에 그게,  
오줌발 트이게  
아뭏쩍 'ecstasy'여야 하잖겠냐.

오줌길,  
찾기가 여명토록 뻥질난게  
'전립선' 인건 뻥한게

잠못자 하품,  
늘주창 그런게  
바래길 'ecstasy'여야 하잖으랴.

오줌줄 오줌발,  
한창으로 힘 좋던게  
한참으로 예전인게

늙은이야,  
여편네야  
대일놓고 요즘에야  
'ecstasy'여야 하잖으랴.

얼르고 달래런,  
에물로 부랄자질  
솔으며 주무르런

오줌줄 오줌발,  
느스케 트이게  
때도없이 요즘서야  
'ecstasy'여야 하잖느냐.

오줌길 뻥질난게  
오줌줄 선창은게  
오줌발 맥없는게

이제 바래보길,  
요즘서야 아뭏쩍  
대놓고 때없이  
'ecstasy'여야 하잖으랴.

작가소개:  
정형의과를 은퇴하고 현재 뉴저지에서 Wine Consultant로 일하고 있음.

벗어 팽개치고는 "당신이 다시 가서 해봐! 바지도 벗기고..."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왔다. 그때부터 내에선 화가 나면 모자를 벗어 내동맹이치는 버릇이 생겼다.

시체 검안보고서는 사단으로 보내졌고 부연대장은 나중에 꼬박 한 병을 보내왔고 그 사건이 그 후 어찌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생긴 여러번의 죽음뻥 했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새로운 하나 이다. 그리고 아직도 월남사람들에게는 그때 내 목숨을 빼앗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 더구나 '딱시딱시'라는 의사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를 해치지 않았던 그 스님, 그 평범한 선량한 월남사람들이 생각난다.

일년에 두 번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내오는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때마다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판랑 전쟁터'를 생각하면 수당을 더 준다고 하면 기꺼이 받겠다고 하며 웃는다. - 2014년 8월 디트로이트에서

작가소개: 재활의학과 은퇴. 한때 재기발랄한 팔방미인으로 날렸었음.

#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4년 7월 2일 ~ 2014년 10월 10일

- 1948 한용현                    1949 김지익                    1950 이철남
- 1951 김익창 이상하
- 1953 이상봉                    1954 이은희                    1955 노용면
- 1956 도상탁 서상철 신명수 주창준
- 1957 김양호 김일훈 김용진 박건호 이동성 임종원 정진복
- 1958 김기태 김학륜 김순옥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류치열 박용화 박호현 송세엽  
신상균 유영호 이동목 이만택 이상설 이운순 이종용 이종국 최병두 최정희
- 1959 김교안 김용덕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임낙중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 1960 권기홍 김완주 김영환 김택경 박명근 박춘명 조재동 염극용 이종석 이덕승  
이상일 임종원 임필순 한성수
- 1961 고의걸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박준환 안창현 이준우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희경 이희백 장성환 조은순 차절준 최지원 최태순 황현상
- 1962 권익현 김한중 김호균 구정을 박진수 박종건 손영진 송영두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윤홍철 정정수 조명호
- 1963 권영조 고영희 김갑중 김정일 김승태 김주용 김태용 김태형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양찬기 윤영섭 윤영욱 이기환 이능석 이수인  
이승현 이범세 이종두 윤진수 조열하 조한원 하상태 한광수
- 1964 김용두 박한영 방효준 신두식 양운택 유효명 유창남 이범석 이웅만 이정필  
이중우 이정은 이효표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권태해 구경희 민경탁 박수안 백길영 서좌일 손광호 이광선 이범석 이점의  
임현재 장재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홍수웅 황규정
- 1966 김진수 김용재 김우신 김은한 김홍규 남궁승 노규상 민발식 이명희 이영일  
이성근 윤병선 정양수 조의열 최순채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성철 김태용 문경웅 박종민 이근용 이민우 이소희 이정화 이진수  
한영수 최승웅
- 1968 김경인 김재관 김주평 김영남 김영덕 김희주 김 철 박정식 서진석 서윤석  
송창호 안궁환 임공세 차재철 최 철 홍광신
- 1969 김병오 김중권 김홍서 송용재 이충호 임안무 임용규
- 1970 김형달 문성길 방준재 송요준 조남현
- 1971 강유구 강창홍 고기영 김제홍 김성환 김유식 김택수 김효순 김창구 노재홍  
박동수 서정자 장문석 정인용 조세진 이성길 오상현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현배 오용호 이기진 장혜숙 최인섭
- 1973 김정용 나두섭 방병기 서인석 오인환 임준형
- 1974 권철수 구재훈 이진현                    1975 김명호 박인영 전경배
- 1976 김대중                    1978 허경열                    1980 박남훈
- 1981 이병호 최선희                    1983 심인보                    1985 박중호
- 1989 오무연                    1999 박성철

### 32nd Convention Donation

- 서상철(56) 200 이종석(60) 100 이희경(61) 100 황현상(60) 100 송영두(62) 100
- 김현철(63) 100 이능석(63) 300 이홍표(64) 500 허선행(64)1000 이명희(66)1000
- 강창홍(71)1000 김성환(71) 500 김유식(71) 100 김창구(71) 100 오용호(72) 200
- 나두섭(73) 100 서인석(73)5000 임준형(73) 100

### General Donation

- 노용면(55) 200 김익창(56) 100 신상균(58) 200 이동목(58) 100 권기홍(60)1000
- 장선환(61) 100
- 송용덕(63) 100 추재욱(63)2000 박수안(65) 75 김성철(67) 75 이근용(68) 100
- 김형달(70) 100 김유식(71) 75 장문석(71) 100 오용호(72) 100 서인석(73) 500
- 임준형(73) 100 김병호(75) 100 심인보(83) 500

### Scholarship Fund

- 김은섭(59) 200 임필순(60) 200 이기범(62) 100 서정자(71) 200 서인석(73) 500
- 임준형(73) 100

### Charity

- 주창준(56) 25 김한중(62) 100 노인규(63) 75 홍선경(64) 100 서인석(73) 500
- 임준형(73) 100

### Green Project

- 이용길(62) 200 민발식(66) 100 김주평(68) 100 서인석(73) 2500 임준형(73) 100
- 박남훈(80) 175

### Community Outreach Fund

-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 Sigetop MoonJip

- 나수섭(50) 200 김갑중(54) 300 노용면(55) 1000 김해암(58) 500 박호현(58) 200
- 김병석(59) 200 임낙중(59) 200 강창욱(61) 200 서취열(61) 200 손기용(61) 200
- 이한수(61) 200 이희경(61) 200 정의철(61) 200 이혜원(61) 300 정두현(61) 200
- 오태요(62) 200 정정수(62) 200 정 태(62) 500 신영규(63) 200 이홍빈(63) 200
- 이철남(64) 200 정유석(64) 200 허선행(64) 300 이한중(65) 200 이명희(66) 200
- 최순채(66) 200 최무용(67) 200 김명원(68) 200 서윤석(68) 250 이건일(68) 200
- 김병오(69) 200 서 량(69) 300 노승국(70) 200 방준재(70) 200 홍 건(70) 200
- 김성환(71) 500 박진국(71) 200 이원택(71) 300 조세진(71) 200 홍성진(71) 200
- 나두섭(73) 200 방병기(73) 200 임준형(73) 200

### Member Directory Fund

- 강신호(52)5000 박근수(49) 75 나수섭(50) 75 이상하(51) 100 노용면(55) 75
- 김익창(56) 50 임종식(57) 100 임종원(57) 300 유상환(57) 25 정구영(57) 30
- 차봉희(57) 10 김은범(58) 100 이운순(58) 100 임영신(58) 50 김용덕(59) 75
- 김은섭(59) 200 김병구(59) 100 정태진(59) 75 최혜숙(59) 100 박춘명(60) 300
- 박명근(60) 100 우병혁(60) 100 이순환(60) 75 이종석(60) 100 한성수(60) 150
- 강창욱(61) 50 김유홍(61) 75 이한수(61) 25 이희백(61) 75 장성환(61) 50
- 진창건(61) 75 최지원(61) 120 최태순(61) 75 황현상(61) 200 김한중(62) 150
- 민경환(62) 125 박종건(62) 100 송영두(62) 100 문홍철(62) 75 이기범(62) 75
- 이상복(62) 100 이태봉(62) 50 권영조(63) 100 김현철(63) 275 이범세(63) 150
- 송용덕(63) 50 장세근(63) 100 하상태(63) 200 한광수(63) 125 권정덕(64) 100
- 김태환(64) 10 양운택(64) 100 이홍표(64) 300 전희택(64) 50 정인태(64) 30
- 허선행(64) 600 홍선경(64) 100 이재진(65) 100 이한중(65) 100 정길화(65) 75
- 채도경(65) 100 광일성(66) 25 노규상(66) 500 이명희(66)1000 장한교(66) 50
- 정양수(66) 50 조의열(66) 100 허서룡(66) 25 최순채(66) 100 이소희(67) 100
- 한영수(67) 100 서진석(68) 50 서윤석(68) 305 서관우(68) 50 차재철(68) 300
- 최 철(68) 100 김중권(69) 200 변영석(69) 100 이승공(69) 100 이용환(69) 100
- 윤효윤(69) 100 방준재(70) 100 강창홍(71) 75 김성환(71) 50 김유식(71) 75
- 김창구(71) 75 서정자(71) 100 오동환(71) 100 이성길(71) 50 이원택(71) 75
- 이창우(71) 300 조세진(71) 50 정진우(72) 100 오용호(72) 200 문대욱(73)1000
- 방병기(73) 125 서인석(73) 500 임준형(73) 400 오인환(73) 100 권철수(74) 100
- 박인영(75) 50 김대중(76) 100 김승관(76) 100 김동수(78) 100 전영식(78) 100

## 2015년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사진 공모전

사진은 추억을 담은 그릇이자 예술입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사진학'에 정진하는 마당에 동창회에서는 '컬작' 들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진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제:

- 1) Artistic photos: 한 명당 10편 이내 출품이 가능함.  
가능한한 자세한 설명 첨부 요망함.
- 2) Memorable photos: Category 및 작품수의 제한이 없음.  
유년시절, 학창시절, 전체동창회, 지역동창회, 동기회 등의 행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환영함. 년도, 장소 및 관련된 설명 첨부 요망함.

### 응모 요강:

- \* 마감일: 2015년 3월 31일
- \* Digital 사진: 파일 용량 10MB 이하의 JPG file; size는 제한 없음.
- \* Analog 사진: 300 dpi 이상의 scanned JPG file; scanner가 없으시면  
원본을 본부에 보내주셔도 됨.
- \* 접수: snuweb@gmail.com (by e-mail)  
snucma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0050 (by mail)

더 자세한 내용은 snucmaa.us website내 "Photo Contest" 에서 보실 수 있음

### 수상작 선정:

- \* 2015년 4월 한 달간 snucmaa.us에 등록된 모든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1,2,3등 및 가작을 선정, 소정의 상금을 학술대회장에서 수여할 예정임.
- \* 새로 등록을 하시는 동문들께도 투표권을 드리니 많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모든 출품된 작품들은 출품후 1-2일내 snucmaa.us website내  
"Photo Contest" 에 게재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바람.
- \* 응모한 작품들을 새로 발간 예정인 Directory 및 시계탑 문집 또는  
시계탑에도 사용될 수 있음.
- \* 가능하면 모든 작품들을 수록한 멋진 사진첩을 발행할 예정임.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회장 서인석(73)

시계탑 편집장 이원택(7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